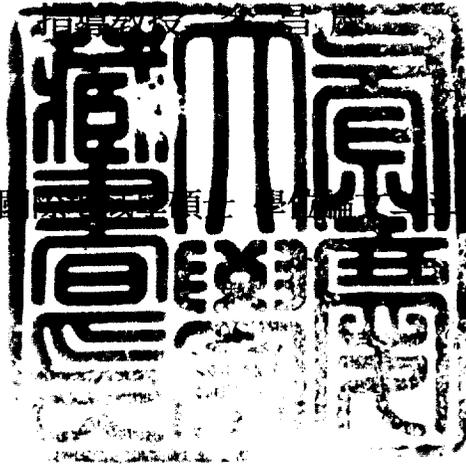


國際地域學碩士 學位論文

# 현대 중국 여대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 論文을 國際地域學碩士 學位論文 提出함



2005년 2월

釜慶大學校 大學院

國際地域學部

陳 楠

陳楠의 國際地域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5년 2월

主 審 政治學博士 金 珍 基



委 員 文學 博士 金 昌 慶



委 員 歷史學博士 曹 世 鉉



# 목 차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제 2절 연구의 한계점 .....	4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5
제 1절 가치관에 관한 이론 .....	5
1. 가치관의 개념 .....	5
2. 가치관의 분류 .....	7
제 2절 선행연구 .....	9
1.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 .....	9
2. 인생관에 관한 선행연구 .....	11
3. 직업관에 관한 선행연구 .....	12
4. 결혼관에 관한 선행연구 .....	13
제 3장. 연구방법 .....	15
제 1절 조사대상의 배경 .....	15
1. 학년 .....	15
2. 전공 .....	15
3. 성장지역 .....	17
4. 보호자의 직업 .....	17
5. 가계의 소득수준 .....	19
제 2절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 .....	21

제 4장. 여대생의 인생관 .....	22
제 1절 인생관의 이론적 배경 .....	22
제 2절 조사결과분석 .....	24
1. 인생목표 .....	24
2. 인생관의 영향요인 .....	27
3. 삶의 보람 .....	30
4. 인생의 추구대상 .....	33
5. 생활의 고민 .....	34
제 3절 소결 .....	37
제 5장. 여대생의 직업관 .....	38
제 1절 직업관의 이론적 배경 .....	38
제 2절 조사결과분석 .....	40
1. 선호하는 직업 .....	40
2. 직업 선택 조건 .....	44
3. 취업 조건 .....	46
제 3절 소결 .....	50
제 6장. 여대생의 결혼관 .....	50
제 1절 결혼관의 이론적 배경 .....	50
제 2절 조사결과분석 .....	52
1. 직업과 가정에 대한 비중 .....	52
2. 혼인과 직업의 관계 .....	55
3. 결혼의 필요성 .....	58

4. 배우자의 교육수준 .....	60
5. 결혼상대의 조건 .....	61
6. 결혼의 시기 .....	63
7. 배우자의 결정 .....	65
8. 결혼 후 취업 .....	68
제 3절 소결 .....	70
제 7장. 결론 .....	73
참고문헌 .....	79
부록 .....	83

# 표 목 차

<표 1> 학자별 가치관 개념의 비교 .....	6
<표 2> Kluckhohn F. R. 의 가치관 분류유형 .....	7
<표 3> 여대생 가치관의 측정영역 및 내용 .....	9
<표 4-1> 보호자 직업에 따른 성장지역의 차이 .....	19
<표 4-2>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른 성장지역의 차이 .....	21
<표 5 1 1> 변인별로 인생목표에 대한 통계 .....	25
<표 5 1 2> 1987년과 2004년의 인생관 비교 .....	26
<표 5-2-1> 변인별로 인생관의 영향요소에 대한 통계 .....	28
<표 5 2 2> 1987년과 2004년의 인생관 영향요소 비교 .....	29
<표 5 3-1> 변인별로 '삶의 보람'에 대한 통계 .....	31
<표 5 3 2> 1987년과 2004년 '삶의 보람'에 대한 비교 .....	32
<표 5 4 1> 변인별로 인생의 추구 대상에 대한 통계 .....	33
<표 5 5 1> 변인별로 생활의 고민에 대한 통계 .....	36
<표 6> 학자별 직업관의 정의에 대한 비교 .....	39
<표 7 1 1> 변인별로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통계 .....	41
<표 7 1 2> 1994년과 2004년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비교 .....	43
<표 7 2 1> 변인별로 직업 선택의 고려조건에 대한 통계 .....	45
<표 7 2 2> 1994년과 2004년 직업 고려조건에 대한 비교 .....	46
<표 7 3 1> 변인별로 취업조건에 대한 통계 .....	47
<표 7 3-2> 1999년과 2004년 취업조건에 대한 비교 .....	48
<표 7 3-3> 연령별 외모나 전공 취업수단에 차지하는 비중 .....	49
<표 7 3 4> 교육수준별 외모와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통계 .....	49

<표 8 1-1> 변인별로 직업과 가정의 관계에 대한 통계 .....	53
<표 8 1 2> 1949-1977년 전민소유제 여직공인원수성장변화 .....	54
<표 8 1-3> 직업과 가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수준별 분포 .....	55
<표 8-2-1> 취업보다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통계 .....	57
<표 8 2-2> 취업보다 결혼이 중요하다는 연령별 인식비율 .....	57
<표 8 2 3> 결혼과 직업의 관계에 따른 교육수준별 차이 .....	58
<표 8-3> 변인별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통계 .....	59
<표 8-4> 변인별로 배우자 교육 수준에 대한 통계 .....	61
<표 8-5> 변인별로 결혼상대의 조건에 대한 통계 .....	63
<표 8 6> 변인별로 결혼시기에 대한 통계 .....	65
<표 8-7-1> 변인별로 배우자의 결정에 대한 통계 .....	67
<표 8 7-2> 연령별 배우자의 결정에 대한 통계 .....	68
<표 8 7 3> 교육수준별 배우자 결정에 대한 통계 .....	68
<표 8 8-1> 변인별로 결혼 후 취업에 대한 통계 .....	69
<표 8 8 2> 도농별, 연령별 결혼 후 취업에 대한 통계 .....	70
<표 8 8 3> 교육수준별 결혼 후 취업에 대한 통계 .....	70

# 그림 목 차

<그림 1-1> 배경변인-학년 .....	16
<그림 1-2> 배경변인-전공 .....	16
<그림 1-3> 배경변인-성장지역 .....	18
<그림 1-4> 배경변인-보호자의 직업 .....	18
<그림 1-5> 배경변인-가계의 소득수준 .....	20

## **ABSTRACT**

### **Study of Modern Chinese College Women's Cultural Viewpoints: Focusing on the Beijing Area**

**Presented by Chen Nan  
Dept.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Graduate School  
Pukyong University**

A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11th session of the Three CCP Plenary Conferences, China's reformation and openness policy have been proceeding rapidly. Since then, great changes in culture and ideology have taken place in addition to reformations in the economic, administrative, occupational areas of the society.

Cultural viewpoints are influenced by the structural and behavioral pressures of society. Changing values are often closely connected with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s of a society. Consequently, the research on Modern Chinese College Women's Cultural Viewpoints can be a significant indicator of the complicated changes and developmental tendencies that are going on in Chinese society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statistical means to measure college women's cultural viewpoints. And through the comparisons made of selected periods and social movements to highlight the changes in cultural viewpoints.

In this study cultural viewpoints are broken down into three surveys;

**view of life (7 questions), view of occupation (9 questions), and view of marriage (12 questions). The measuring tools and questionnaires used for preparing this study are originally from three resources (a book written by Chen Fang, two articles written by Zhu WenBing and Guo ZhengLin).**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analysis of variances (and F valu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feelings of self-actualization and accomplishment of modern college women is getting stronger than that of 1987. Views of life such as idealism and community that had been oriented by the overall national interest have been largely replaced by utilitarianism, individualism, and realism.**
- (2) Modern college women's preference to high-salary jobs rather than high-ranking jobs. Stability and job security has become important condition when they choose a job.**
- (3) As to marriage, it is revealed that on the one hand modern college women have retained some traditional values, on the other hand, they display a pursuit of self-accomplishment and independence.**

## 제 1장. 서론

### 제 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차 삼중전회<sup>1)</sup>를 기점으로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국에서 대규모적인 사회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경제체제개혁을 비롯하여 경제구조, 행정관리구조, 직업구조, 문화와 이데올로기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sup>2)</sup>의 10년 혼란을 거친 후 국민경제가 거의 붕괴될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개혁개방과 더불어 사상 해방운동도 전개되었다. 이는 바로 ‘진리·표준문제’<sup>3)</sup>에 대한 공개토론 등으로 나타났다. 이 토론은 기존 중국사회의 가치관, 즉 권위숭배, 자아가지, 관리제도, 경제정치체제, 전통문화 등에서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 개혁개방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폐쇄국면이 타파되었다. 아울러 중국인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부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서양의 문화가 중국사회에 유입되면서 동서양 문화의 충돌이 새로운 사회가치관 변화의

1) 이것은 1978년 12월 18일-22일, 중국공산당 제11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가리킨다.

2) ‘무산계류의 문화대혁명’의 준말이다. 이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대의 중대한 정치운동의 하나이다.

3) 1978년 5월 11일 <광명일보>에서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평론을 게재하면서 ‘진리·표준문제’에 대한 토론의 계기를 만들었다. 진리·표준문제에 관한 토론은 사실 덩소평이 지지한 사상해방운동이다. 이 운동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좌’모선의 속박을 타파함으로써 개혁개방정책(제1차 삼중전회에서 붕괴됨)의 계기를 만들었다(戴煌, 2004:54).

축매가 되었다.

그런데 사회변천의 각도에서 보면,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구조체제와 행위방식의 변화와는 다르지만, 가치관 역시 사회요소의 하나로서 이러한 요소들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즉, 경제체제의 개혁을 시행하기에 앞서 낡은 계획경제관념을 버려야 하듯이, 정치체제의 개혁을 시행한다면 보수적 정치이념의 쇄신이 필요하다(李明華 1992:66). 이처럼 본 논문의 주제인 '여대생 가치관 변화'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국 현대 여대생들의 가치관 변화 과정과 원인에 대한 연구는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중국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금 중국인이 겪고 있는 사회변화를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사회의 발전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 여성 가치관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시집가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嫁雞隨雞, 嫁狗隨狗]'라는 전통 관념<sup>4)</sup>에서,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받들 수 있다[婦女能頂半邊天]'라는 50-60년대 계획경제시기의 남녀평등사상을 거쳐, 현재에는 '좋은 일자리보다 시집을 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干得好, 不如嫁得好]'라는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가

4) 중국의 전통 여성들에서 주어졌던 역할은 아내의 역할이었다. 아내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은 유용한 가사능력, 연상자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과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사색인 우아함을 배웠는데, 이것은 심지어 성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집사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진족(纏足)이라는 고통스런 관습까지도 행하였다. 일단 결혼하면, 남편의 가정에 봉사하는 것이 여성의 중요한 임부가 된다. 아내의 경우, 진정을 떠나 부계(父系)나 시가(媳家)에서 사는 진족 구성원의 일부가 되었다. 남편 가족에 속하는 죽은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법률, 윤리적인 교훈, 수준 높은 문화나 또는 낮은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이자들이 결혼생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확고부동한 형태로 고정시켰다(P.B. Ebrey의 배속회 역 1999:3).

운데 특히 1978년 산아제한정책[計劃生育政策] 이후 태어난 독자녀 세대의 여대생들은 특별한 사회배경과 특수한 가정배경을 지니고 있어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張敏 2002:2). 따라서 그들에 대한 연구는 현대 중국 여성의 가치관을 연구하는데 있어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한 사회에서 청년은 특수한 집단이다. 사회 발전의 시간적 추이로 볼 때, 그들은 과거의 경험 영역보다는 미래의 발전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지니고 있기에, 미래로 향해 뻗어나갈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은 사회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기에, 그들의 관념과 의식은 한 국가의 사회 가치관의 발전추세를 드러낸다(‘現代中國青年價值觀變化’課題組1993:6). 따라서 현대 청년집단에 속한 여대생 집단의 가치관 연구는 중국사회 가치관의 발전추세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여대생의 가치관을 인생관·직업관·결혼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이를 통해 시대적 차이에 따른 여대생들의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고 또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5) 진방(陳方)의 저서 『世紀之交中國女性價值觀的變化』에서 1990년과 2000년 10년 동안 여성 인생관, 가정관, 결혼관, 직업관, 성별관, 교육관, 정치관의 대비연구를 통해서 중국 여성 가치관의 변화추세와 변화원인을 밝혔다. 또 中國社會科學院社會學研究所 ‘現代中國青年價值觀變化’ 課題組 『關與一代中國青年價值觀的研究』의 저지에서 청년의 가치관을 인생관, 도덕관, 직업관, 정치관, 결혼관 등으로 나누어 90년대를 전후한(정확히 1988년~1990년) 청년들의 가치관 속에 ‘관념과 행위의 불균형’, ‘가치관단과 선택의 모순’, ‘변화의 불안정’ 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현대 여대생의 가치관을 연구하는데 인생관·직업관·결혼관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 제 2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 분석이기에 상당히 많은 제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의 한계성이다. 본 연구는 중국 여대생들의 가치관을 살펴 보는데 있다. 여기에는 전국 각 지역 대학교의 여대생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본 논문의 조사대상은 북경지역 대학교 여대생으로 한정하였기에 통계조사의 지역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북경지역의 대학교에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이 많은 분포를 이루기에, 여대생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배경분포의 제한성이다. 본 연구는 의도(意圖)적인 조사를 피하기 위해 160부의 설문지 중 60부는 북경 소재 대학교의 도서관, 교내식당 등 여대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편리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sup>6)</sup>으로 추가 조사했다. 그래서 계열별<sup>7)</sup>, 학년별, 성장지역별,

6)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확률추출(probability sampling)과 비확률추출(nonprobability sampling)이 있다. 편리추출방법이 비확률추출에 속한다. 확률추출은 모집단의 요소들에게 표본에 뽑힐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비확률추출은 모집단의 개별 구성요소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동일하지 않는 방법이다. 확률추출은 개인의 입장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많은 비용이 사용된다. 비확률추출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지만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확률추출으로 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학문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추출방법이다. 비확률추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와 이론적 배경을 참고하여 확률표집 했을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최종후, 1998:186;홍성연, 2004:46;권세희, 2004:58). 본 연구는 현대 중국여대생 가치관을 연구하는데,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 세 주제를 나눠서 시대에 따라 여대생 가치관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베이징지역에 있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부작위 설문조사한 결과 학년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SPSS의 통계결과는 사실과 상이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수정함으로써 현대 중국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여대생의 가치관이 사실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앞으로 학년별에 따른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

보호자 직업별, 가계의 소득수준별의 응답자 구성 비례가 균형적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셋째, 시기 구분의 한계성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생관·직업관·결혼관은 그 변화를 드러내는 분기점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통일된 시기 구분보다 각각의 주제에 따라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제 1절 가치관에 관한 이론

#### 1. 가치관의 개념

가치관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리적 성향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또한 가치관의 개념이나 본질을 규명하기 어렵고, 학자들 사이의 견해도 다양하다. F. R. Kluckhohn과 F. L. Strodtbeck는 가치관은 부단히 계속되는 인간행동의 흐름에 대해서 질서와 방향을 제시하고 공통적인 인간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을 제공한다. 또한 가치관은 ‘인지적’, ‘정의(定義)적’, ‘방향적’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간행위와 사상에 대해 질서와 방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Kluckhohn et al 1961:123, 김낙중 1995:13재인용). T. M. Newcomb은 “가치관은 행동 목표와 양식 선택에

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 본 연구의 개념은 인본·사회개연, 자연개연과 예체능개연로 나눈다.

영향을 주는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적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T. M. Newcomb et al 1965:44 45, 김낙중 1995:13재인용). 또 Rokeach는 가치관이란 한 특수한 행위의 양식이나 생활의 목적상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Rokeach 1973, 주영 1994:12재인용). 학자들의 가치관에 대한 주장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표 1>와 같다.

<표 1> 학자별 가치관 개념의 비교

학 자 명	가치관의 개념
Kludholm & Strodtbeck(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행동체제에 질서와 방향을 제시</li> <li>· 과제를 해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의사를 이루는 것</li> </ul>
Newcomb(1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사물에 대한 태도를 종합할 수 있는 것</li> </ul>
Thorne(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존재와 충만한 삶을 확립시키는 것</li> <li>· 인간이 성취하거나 획득하거나 옹호하고자 하는 대상</li> </ul>
Rokeach(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행위양식이나 생활의 목적 상태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것보다 이롭다는 통속적인 신념</li> </ul>

출처: 박상욱(2002:17)에서 재인용

따라서 가치관은 한 사회의 문화체계의 일부로서 사회화를 통해 개인의 퍼스낼리티 속에 내면화되고 사회구조와 밀접히 관계되는 것으로서 퍼스낼리티, 문화, 사회구조 연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는 개념이며, 기능적으로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이다(신수

진외 2002:29).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일상생활속의 행동이나 생활실태보다는 대상에 대한 지각과 판단에 중점을 두어 그들의 가치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이 선호하는 성향과 내면적 사고방식 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가치관의 분류

가치관은 사회심리학적, 문화인류학적, 개인적, 사회적 4 가지차원의 개념이 있고 어떠한 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다양한 가치관의 정의로 인해 가치관을 분류하는 방법도 달리 나타난다. 그 중 Kluckhohn, F. R. 과 Strodtbeck, F. L. 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으로 보는 가치관을 분석 평가하였다(<표2> 참조)

<표 2> Kluckhohn, F. R. 의 가치관 분류 유형

지향성 (orientation)	다양성의 기본적인 범위 (Postulated Range of Variations)		
인간의 본성 (Human Nature)	악 (Evil)	중성 (Neutral)	선 (Good)
인간과 자연의 관계 (Man-Nature)	종속 (Subjugation to Nature)	조화 (Harmony with Nature)	정복 (Mastery over-Nature)
시간관 (Time)	과거 (Past)	현재 (Present)	미래 (Future)
활동관 (Activity)	존재 (Being)	생성 (Being in Becoming)	실행 (Doing)
인간과 인간관계 (Human Relation)	종직 Lineality	횡직 Collaterality	개인적 Individualism

출처:Kluckhohn, F. R. et al (1961);서수환(2003:20)에서 재인용

개인적·사회적 관점에서 가치관을 평가 분석한 이로는 Osgood<sup>8)</sup>와 G. W. Allport<sup>9)</sup> 등이 있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관의 영역은 분석자나 학문적 관심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설문 문항을 설정하여 여대생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 8) Osgood는 가치관을 정치적 인물과 정치문제 분야에만 국한시켰다. 특히 그의 도시평가 가치법(圖示評價價值法 Graphic Rating Scale)은 가치관을 평가적 요인(Evaluative Factor), 태도요인(Potency Factor), 활동요인(Activity Factor)으로 구분하였다(Osgood, C.E. 1957:88).
- 9) Allport는 지적인 수단에 의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과 연관된 이론적 가치관, 유용하고 실제적인 사물에 대한 것과 연관된 경제적 가치관,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것과 연관된 심미적 가치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과 연관된 사회적 가치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과 연관된 정치적 가치관, 성서적 성취에 대한 것과 연관된 종교적 가치관 등 여섯 가지 인격적 가치 측정의 척도를 제작하였다(G. W. Allport 1960:55-56).

<표 3> 여대생의 가치관 측정영역 및 내용

영역	분항
인생관	1. 인생의 목표
	2. 인생관의 영향요소
	3. 삶의 보람
	4. 인생의 추구대상
	5. 생활의 고민
직업관	1. 선호하는 직업
	2. 직업선택 고려사상
	3. 취업조건
결혼관	1. 직업과 가정의 관계
	2. 혼인과 직업의 관계
	3. 결혼의 필요성
	4. 배우자의 교육수준
	5. 결혼상대의 조건
	6. 결혼의 시기
	7. 배우자의 결성권
	8. 결혼 후 귀업

## 제 2절 선행연구

### 1.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10여 년 동안 중국 학계에서 가치관 연구에 관심을 표시했음에 불구하고 여대생에 대한 가치관 연구는 다른 가치관 영역의 연구와 비교하면 매우 빈약하다.

가치관에 관한 기존연구는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가치관 이론 연구와 2차 자료 연구이다. 여기에는 안개리(晏凱利), 주나매(朱娜梅), 왕송명(汪松明), 곽연태(郭連太)등의 연구를 들을 수 있다.<sup>10)</sup> 안개리(晏凱利)는 현대 대학생의 가치관에 ‘과동성’, ‘다원성’,

‘경험성’, ‘모방성’, ‘모순성’ 등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나메(朱娜梅)는 60년대와 80년대의 대학생 가치관의 대비를 통해서, 개혁·개방 초반(80년대) 대학생 가치관의 특징으로 ‘혼돈’과 ‘다원’을 제시하고 있다. 왕송명(汪松明)은 현대 대학생이 지니고 있는 ‘개인주의’, ‘실용주의’와 ‘급진만능주의’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집단주의가치관’과 ‘사회주의가치관’에 기초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연태(郭連太)는 대학생들의 가치관 형성 요인을 내적·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그는 ‘심리활동’, ‘신가치관과 구가치관의 모순’을 가치관 형성의 내적 요인으로, ‘환경’, ‘교육’, ‘사회실천’을 외적 요인으로 보았다.

둘째, 통계분석에 의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연구팀, 음국은(陰國恩), 봉개평(逢凱平), 진방(陳方)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0)</sup> 사회과학원 연구팀은 청년의 가치관을 인생관, 도덕관, 직업관, 정치관, 결혼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들은 90년대를 전후한(정확히 1988년~1991년) 청년들의 가치관 속에 ‘관념과 행위의 불균형’, ‘가치관단과 선택의 모순’, ‘변화의 불안정’ 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봉개평(逢凱平)은 대학생의 가치성향이 ‘정치’, ‘심미

10) ① 안캐리(晏凱利). 1998. “90年代大學生價值觀的研究” 『書摘』 第3期.

② 주나메(朱娜梅). 1991. “80年代大學生價值觀的研究” 『大衆心理學』 第6期.

③ 왕송명(汪松明). 2000. “新時代大學生的價值觀特徵和教育對策” 『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8期.

④ 곽연태(郭連太). 1997. “大學生價值觀形成和發展的條件” 『天津紡織工學院學報』 第16卷 第3期.

11) ① 中國社會科學院社會學研究所·‘現代中國青年價值觀變化’課題組. 1993.

『關與一代中國青年價值觀的研究』北京出版社.

② 봉개평(逢凱平). 1989. “北京大學生價值觀性向的初步定量研究” 『心理發展與教育』 第2期.

③ 진방(陳方). 2003. 『世紀交替·中國女性價值觀的變化』社會科學出版社.

(審美), '이론', '경제', '사회', '종교'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진방(陳方)은 여성의 인생관, 가정관, 결혼관, 직업관, 성별관, 교육관, 정치관 등 여러 측면의 조사를 통해서 현대 중국여성 가치관의 변화원인과 추세를 밝히고 있다.

셋째, 인터뷰를 통한 조사·분석이다. 여기에는 나평(羅萍), 조숙문(趙淑文)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2)</sup> 나평(羅萍)은 여대생은 가정보다 직업을 더 추구하고, 혼인에서 '애정' 요인이 점차 중시되는 경향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숙문(趙淑文)은 대학생들의 인생관에 있어 물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까닭은 물질만능주의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여대생들의 가치관을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인생관에 관한 선행연구

대학생 인생관에 관한 기존연구는 연구방법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인생관 이론 연구와 2차 자료 연구이다. 여기에는 왕진경(王殿卿), 정강(丁剛), 사육민(謝育敏)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3)</sup> 왕진경(王殿卿)은 대학생 집단 가운데 날로 증가하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12) ① 나평(羅萍), 1995. "現代女大學生價值觀的深度訪談" 『中國婦女管理幹部學院學報』 第2期.

② 조숙문(趙淑文), 1994. "當代表學生價值觀的特徵和形成過程的影響要素"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13) ① 왕진경(王殿卿), 1989. "對10年大學生人生觀教育反思" 『中國高等教育』 第12期.

② 정강(丁剛), 1994. "現代大學生人生觀的現狀和反思" 『社會科學戰線』 第3期

③ 사육민(謝育敏), 1991. "大學生人生觀教育的矛盾和問題" 『權南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5期.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공산주의 인생관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강(丁剛)은 현대 대학생 인생관에서 '이기주의', '이상의 모호성', '과소비성향'을 주요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있다. 사육민(謝育敏)은 '환경'과 '대학생의 개성차이'를 중시하는 교육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 통계분석에 의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주문빈(朱文彬), 유여권(劉汝權)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4)</sup> 주문빈(朱文彬)은 '사회생활환경', '삶의 보람', '개인의 생활체험', '정확한 이론에 의한 실천 활동'이 인생관을 형성하는 영향요소라고 간주하고 있다. 유여권(劉汝權)은 '사회경제환경', '사회경쟁환경', '사회풍습'이 인생관을 형성하는 영향요소라고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기초로 하여 여대생의 인생관을 <표3>과 같이 5분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3. 직업관에 관한 선행연구

대학생 직업관에 관한 기존연구는 연구방법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직업관 이론 연구와 2차 자료 연구이다. 여기에는 주부평(周富平), 진애화(陳愛華)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5)</sup> 주부평(周富平)은 90년대

14) ① 주문빈(朱文彬). 1987. "青年大學生人生觀的特徵和形成過程的影響要素" 『高教研究』第2期

② 유여권(劉汝權). 1993. "現代大學生人生觀分析" 『社會』第7期.

15) ① 주부평(周富平). 2000. "90年代大學生職業觀的變化和發展趨勢" 『大學生研究』第5期.

② 진애화(陳愛華). 1998. "現代女大學生就業觀的變化和價值" 『婦女之友』.

이래 '전공지식'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까지, '이상주의'로부터 '현실주의'까지, '일차적 취업'으로부터 '이차적 취업'까지 등 대학생 취업방식의 변화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진애화(陳愛華)는 여대생 취업 변화와 가치를 '자아의식의 강화', '자신지위의 향상', '사회문화심리의 추동(推動)'에 두고 있다.

둘째, 통계분석에 의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소나(蘇娜), 광정림(郭正林)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6)</sup> 소나(蘇娜)는 사회지위보다 경제적 이익, 현모양처보다 개인의 발전, 피동적 취업보다 능동적 취업을 더 중요시하는 현대 여대생 직업관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광정림(郭正林)은 현대 여대생 직업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수익', '자아가치실현', '전공과 관련여부' 등의 성향이 나타났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기초로 하여 여대생의 직업관을 <표3>과 같이 3분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4. 결혼관에 관한 선행연구

결혼관의 기존연구는 연구방법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결혼관 이론 연구와 2차 자료 연구이다. 여기에는 범해연(范海燕), 기추발(記秋發)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7)</sup> 범해연(范海燕)은 80년대 이후 여성의 배우자선택기준, 결혼의 목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第8期.

16) ① 소나(蘇娜). 1999. "女大生就業觀的探究" 「中國婦運」 第8期.

② 광정림(郭正林). 1994. "廣東女大學生職業觀的調查研究" 「青年研究」 第12期.

17) ① 범해연(范海燕). 2001. "改革開放以來中國女性婚姻觀的變遷" 「婦女研究」

第1期.

② 기추발(記秋發). 1995. "北京青年的結婚觀調查分析" 「青年研究」 第7期

개혁개방 이래 여성들이 전통 결혼관에 대해 거부 성향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추발(記秋發)은 현대 북경정년은 '애정'에 기초한 결혼의 '자유선택' 경향을 드러내고 있고, 결혼 관념에 있어서도 남녀성별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통계분석에 의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양정존(楊正存), 담만니(譚曼尼) 등의 연구를 들을 수 있다.<sup>18)</sup> 양정존(楊正存)은 심천(深圳)시민의 가정, 사랑, 혼인, 성에 대한 분석조사를 통해, 결혼의 만족도가 예전보다 높아졌음을 밝히고 있다. 담만니(譚曼尼)는 중국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결혼 관념의 변화와 사회개혁의 충격으로 인한 이혼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중국청년이 예전보다 '애정'을 기초로 한 혼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인터뷰에 의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사마남(司馬南)의 연구를 들을 수 있다. 사마남(司馬南)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화이트 컬러'여성의 독신비율을 제시하여 고학력 여성이 늦게 결혼하는 원인과 대책을 지적하고 있다.<sup>19)</sup>

본 논문은 이를 기초로 하여 여대생의 결혼관을 <표3>과 같이 8문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상술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중국에서 가치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고, 가치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보다 이론적 추론에 의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치적 지향성을 띤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일차 자료인 통계조사에도 다각적인 변인을 다루고 있지만,

18) ① 양정존(楊正存), 2001, “深圳市民婚姻實態和結婚觀的調查” 「深圳週刊」第44期.

② 담만니(譚曼尼), 1988, “社會變革和結婚觀念” 「中國建設」第37卷 第3期.

19) 사마남(司馬南), 1998, “白領女性的婚姻觀” 「人到中年」第1期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 연구 특히 사회변화에 따른 여대생 가치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여대생의 가치관 연구를 통해 그들의 의식 변화와 원인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후의 관심 주제인 중국 부녀의 가치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여긴다.

## 제 3장. 연구방법

### 제 1 절 조사대상의 배경

본 조사는 2004년 9월 1부터 9일 까지 1주 동안 북경시 소재 네 개 대학교(북경사범대학교, 북경공업대학교, 북경대학교, 수도사범대학교)의 재학 중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에 회수된 160부의 설문지 가운데 유용한 자료 153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의 배경은 6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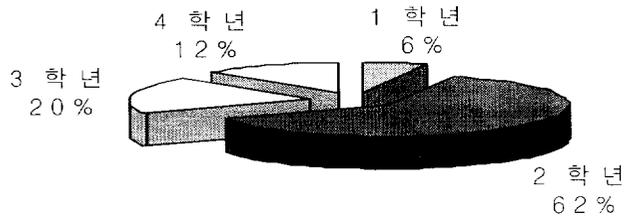
학년분포를 보면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학년에 따른 분포는 1학년이 6%, 2학년이 62%, 3학년이 20%, 4학년이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2학년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 2.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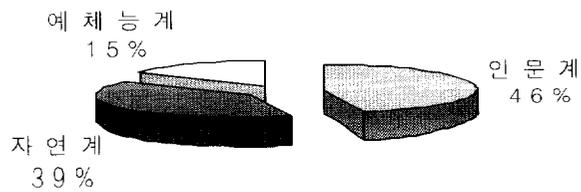
전공분포를 보면(<그림 1-2> 참조) 인문계가 46%, 자연계가 39%,

예체능계가 1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예체능계가 낮은 까닭은 학교마다 예체능계 여대생비율이 인문계와 자연계보다 낮기 때문이다.

인 원 수



<그림 1-1> 배경변인 학년



<그림 1-2> 배경변인-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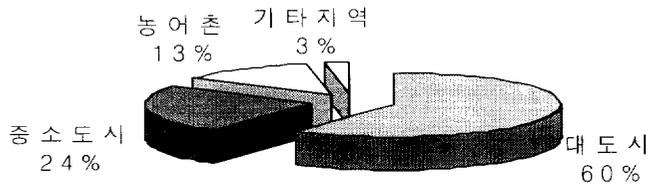
### 3. 성장지역

성장지역별로 살펴보면 60%의 조사대상자는 대도시의 출신이고 중·소도시, 농어촌과 기타 지역의 조사대상자는 각각 24%, 13%, 3%로 분포하였다<그림 1-3>. 이처럼 대도시출신의 응답자가 많은 까닭은 다른 지역보다 대도시지역 출신자의 진학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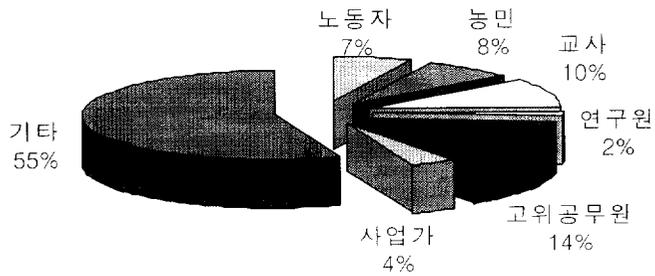
### 4. 보호자의 직업

보호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기타’ 문항을 답한 학생이 85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55%를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1-4>. 이처럼 많은 학생이 부모의 직업을 밝히지 않은 까닭은 응답자 부모의 직업이 설문조사의 문항 안에 들어있지 않거나 부모의 개인정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제외한 응답자의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고위공무원(14%), 교사(10%), 농민(8%), 노동자(7%), 사업가(4%), 연구원(2%)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따른 응답자기주지역<표 1-1>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有意)적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P < 0.01$ ). 대도시지역에 사는 응답자 부모의 직업이 연구원(100%), 노동자(60.0%), 고위공무원(52.4%), 교사(50%), 자영업(5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사는 응답자 부모의 직업이 주로 자영업(50.0%), 고위공무원(38.1%), 교사(3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에 사는 응답자 부모의 직업이 91.7% 농민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배경변인 성장지역



<그림 1-4> 배경변인 보호자의 직업

<표 4-1> 보호자 직업에 따른 성장지역의 차이

변인 별	내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타지역	비고
		보호자	노동자	60.0	40.0	
	농민	0.0	8.3	91.7	0.0	
	교사	50.0	31.3	6.3	12.5	
	연구원	100.0	0.0	0.0	0.0	
	고위공무원	52.4	38.1	4.8	4.8	
직업	자영업	50.0	50.0	0.0	0.0	
	기타	71.8	18.8	8.2	1.2	

## 5. 가계의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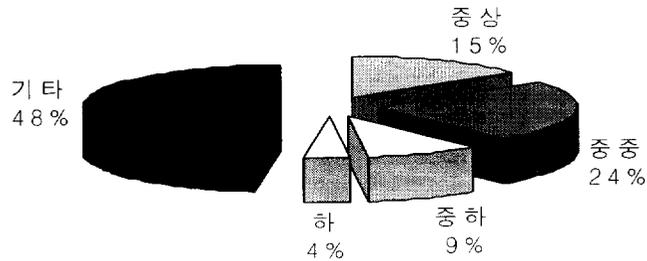
가계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타’ 문항으로 응답한 인원수가 73명으로 전체 응답자수의 47%를 차지한다<그림 1-5>. 이것은 또한 보호자의 직업에 대한 응답률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같은 민감한 질문에 답하기를 꺼린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응답자 가계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중중’이라 답한 비율은 24%, ‘중상’이라 답한 비율은 15%, ‘중하’이라 답한 비율은 9%, ‘하’이라 답한 비율은 4%의 순으로

20)  $\chi^2$ (Chi-square) : 실제 빈도수와 기대 빈도수를 비교하여 두 집단의 속성이 서로 독립적인가를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통계량

D.F. : 자유도를 말하며 샘플에서 1개를 제거하더라도 통계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의 정도(김순덕 1996:28).

P(Probability): 보통  $\alpha$ 와 같이 유의도 수준(Significant Level)을 표시한다. 유의도 수준은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의 분포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경우 유의해야 할 수준이며, 달리 말하면 영가설이 맞을 확률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유의수준이 0.05미만, 즉 5%미만인 경우에는 영가설은 틀리다고 가정하고, 연구가설(가치가 있다)을 인정해도 변 문제가 없다고 합의를 했다.(우수명 2001:254).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가계 소득수준은 대체로 중산층의 가정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5> 배경변인 가계의 소득수준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자의 성장지역의 분포<표 1-2>를 살펴보면 유의(有意)적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P < 0.01$ ). 가계의 소득수준이 '중상'과 '중'에 속한 응답자는 대부분 대도시지역의 출신인 반면에 '중하'와 '하'에 속한 응답자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의 출신이다. '중소'도시지역 출신자의 가계 소득수준이 '중'이라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성장지역의 차이

변인 별	내용 구분	지역				비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타지역	
소득 수 준	기타	68.5	20.5	9.6	1.4	$\chi^2=48.09$ D.F.=12 P<0.01
	중상	78.3	21.7	0.0	0.0	
	중	51.4	35.1	5.4	8.1	
	중하	28.6	14.3	57.1	0.0	
	하	16.7	33.3	50.0	0.0	

## 제 2절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인생관, 직업관 및 결혼관에 대한 조사·분석을 함으로써 여대생의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사회변천의 배경에 의한 인생관, 직업관 및 결혼관은 특정시기를 전후하여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 맞추어 세부요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자료는 주로 진방(陳方), 주문빈(朱文彬)과 곽정림(郭正林) 등의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문항 구성은 인생관 5개항, 직업관 3개항, 결혼관 8개항 총 16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설문지는 각 문항마다 가장 적합한 답을 선택하는 단일 선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참고>.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각 문항에 따른 응답자의 전체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백분율(N%)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즉,  $\chi^2$  (chi-square)검증<sup>21)</sup>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료처리는 인문사회과학통계 패키지인 SPSS WIN 10.0<sup>22)</sup>을 이용하였다.

## 제 4장. 여대생의 인생관

### 제 1절 인생관의 이론적 배경

사회 가치관체계에 있어서 인생관은 심층적이고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또한 인생관은 인생의 목적과 의의에 관련된 타인, 단체, 사회, 도덕, 이상, 생명, 노동, 혼인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丁剛 1994:54).

인생관은 일정한 사회의 제도, 경제, 정치, 문화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신권(神權)국가에서는 개인의 행위와 신의 의지(意志)의 통일성이 인생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상품경제사회에서는 물질과 이익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즉 '부(富)'를 기준으로 한 가치가 평가된

21) 교차분석(Crosstabs)이란 둘 이상의 변수를 교차시켜 각각의 값에 해당하는 사례로 분할하여 그 빈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교차분석은 명목 또는 서열 척도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 기법이다. 그리고 교차분석에 사용되는 검정통계량은 카이제곱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카이제곱분석(chi-square analysis)이라고도 한다.(박성민외 2002:153).

22) SPSS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의 첫 자를 딴 통계 패키지이다. 이름 그대로 사회과학 자료 분석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통계 패키지이다. 윈도우용 SPSS는 풀다운 메뉴와 간단한 대화상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픽 환경에서 통계분석과 통계자료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정영해 외 2003:15).

다. 집단주의 인생관은 개인이 단체에 종속되는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전통 중국인이 지닌 ‘안정(安定)’, ‘순종(順從)’, ‘인내(忍耐)’의 인생태도도 봉건적 종속관계, 폐쇄된 사회구조와 관련이 있다(劉汝權 1993:34).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개혁 개방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중국인의 인생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도 변화를 거듭하였다<sup>23)</sup>.

주문빈(朱文彬)의 1987년 연구에서 대부분의 여대생은 국가의 번영(38.30%)과 개인의 행복(35.10%)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朱文彬 1987:74). 따라서 당시 여대생의 인생관은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국가통치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혼돈을 설명하고 있었다. 90년대에 이르러 사회에서 여성의 ‘개인적 활동능력’을 중요시 하였다. 독립, 용기, 끈기 등 남성의 특징이 여성에게도 쓰이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개인성향이 더욱 두드러졌다(朱建剛 2001:75 103).

본 연구에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인생의 목표’, ‘인생관의 영향

23)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해 왕리화(王麗華)는 모택동 시기(1963-1976)와 덩소평(1978-1994) 시기로 나누었다. 50-60년대(모택동 시기)의 중국사회에는 경제발전보다 계급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을 더 중요시 하였다. 1958년도의 대약진운동은 중국 여성을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게 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중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노동을 격려하기 위해 남녀평등사상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모택동의 계급투쟁 사상에 따라 당시 사람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기보다 계급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별을 잊어버리고 ‘공산주의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을 자기의 인생목표로 하였다. 1978년(덩소평 시기)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 및 중국인의 심리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문화 특히 시장 메커니즘이 중국의 경제, 사회생활과 결합되어 전통의 사회경제구조와 조직관리를 분열시켰다. 이처럼 사회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성도 자아발전과 자아실현의 인생관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王麗華 2000:14).

요소', '삶의 보람', '인생의 추구목표', '생활의 고민' 5 가지 문항을 통해서 현대 여대생 인생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sup>24)</sup>.

## 제 2절 조사결과분석

### 1. 인생목표

인생목표에 대한 질문에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58.66%)'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24.1%)'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두 번째 순으로, '국가의 번영을 위해(0.60%)', '운명에 따라(3.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개인의 명예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문항보다 높은 편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66.7%의 1학년 여대생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인생목표를 선택한 반면에 68.4%, 73.3%와 55.8%의 2학년, 3학년, 4학년 여대생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인생목표를 선택했다. 즉, 1학년 학생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인생목표를 많이 가진 반면에 2, 3, 4학년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인생목표를 많이 가진 편이다. 전공별로 보면 68.6%의 '인문계'와 55.0%의 '자연계'의 여대생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인생목표를 선택한 반면에 52.2%의 예체능계의 여대생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인생목표를 선택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요즘 여대생들의 인생목표는 '국가의 번영'보다 '개인의

24) 주문빈(朱文彬)의 1987년 연구에서 여대생인생관을 '인생의 목표', '인생관의 영향요소', '삶의 보람'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생관 부분에 있어서 주로 당시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그 연구결과와 대비를 통해서 다루고자 한다.

행복'과 '개인의 명예'를 더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표 5-1-1>참조).

<표 5-1-1> 변인별 인생목표에 대한 통계

변인별	내 용	국가의 번영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명예를 위해	운명에 따라	비 고
	구 분 N%					
		0.6	58.66	37.37	3.30	
소득수준	중상	0(0)	15(65.2)	8(34.8)	0(0)	$\chi^2=10.47$ D.F.=12 P>0.05
	중중	0(0)	22(59.5)	15(40.5)	0(0)	
	중하	0(0)	8(57.1)	5(35.7)	1(7.1)	
	하	0(0)	4(66.7)	1(16.7)	1(16.7)	
	기타	2(2.7)	42(57.5)	27(37.0)	2(2.7)	
학년	1학년	0(0)	3(33.3)	6(66.7)	0(0)	$\chi^2=9.35$ D.F.=9 P>0.05
	2학년	2(2.1)	53(55.8)	36(37.9)	4(4.2)	
	3학년	0(0)	22(73.3)	8(26.7)	0(0)	
	4학년	0(0)	13(68.4)	6(31.6)	0(0)	
전공	인문계열	0(0)	48(68.6)	20(28.6)	2(2.9)	$\chi^2=8.70$ D.F.=6 P>0.05
	자연계열	2(3.3)	33(55.0)	24(40.0)	1(1.7)	
	예체능계열	0(0)	10(43.5)	12(52.2)	1(4.3)	

이것을 주문빈(朱文彬) 1987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표 5-1-2> 참조), 1987년 '국가의 번영을 위해(38.30%)'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본 조사의 결과(0.6%)보다 훨씬 높은 편이었다. 또한 '개인

의 행복을 위해'와 '개인의 명예를 위해'라 답한 비율이 각각 35.10%와 17.02%를 차지해 2004년의 응답비율보다 낮은 편이었다(朱文彬 1987:74).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1987년 여대생의 인생목표가 국가와 개인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1-2> 1987년과 2004년 여대생 '인생목표'의 비교

연도	1987년	2004년
국가 번영을 위해	72(38.30)	1(0.6)
개인 행복을 위해	66(35.10)	88(58.66)
개인 명예를 위해	32(17.02)	56(37.37)
운명에 따라	19(10.10)	4(3.30)
합계	188명(100%)	153명(100%)

80년대 말의 여대생은 대부분 '문혁'시기에 태어난 청년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이들 청년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혼돈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이전 세대가 겪었던 혼란보다 더욱 심하였다<sup>25)</sup>. 그 후로 '서양사상 맹신'<sup>26)</sup>, '학생장업 열기'<sup>27)</sup>, '대학원생 자퇴 풍조'<sup>28)</sup>, '유학 열풍'<sup>29)</sup>과

25) 1978년 5월 11일 <광명일보>에서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의 평론이 게재되면서 '진리·표준문제'에 대한 토론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 후 1980년 <중국청년><sup>11</sup>잡지에서 '반효(潘曉)'라는 필명을 가진 청년의 '인생의 의미'에 대한 편지가 공개되면서 '인생관에 대한 대토론'을 전국적으로 펼쳤다. 당시 이 편지에 대해 6만여 명 청년들이 답장을 보내왔다. 그들은 50-60년대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와 인생가치기준에 대해 거리낌 없이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26) 개혁 개방 후 서양의 '개인주의', '공리(功利)주의', '실용주의' 사상에 대한 추구

‘외자기업취업 열기’<sup>30)</sup>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청년들의 인생관이 많이 다원화되었음을 설명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 당시 여학생의 인생목표도 주문빈(朱文彬)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발전과 자기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결과를 드러내었다.

당시 청년들의 이러한 인생목표가 다원화되고 혼돈된 것에 비해 지금 여대생들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과 명예만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여대생의 의식이 이렇게 바뀐 까닭은 조사 대상자의 가정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조사의 대상자 대부분은 70년대 말부터 시행된 산아제한정책(計劃生育政策)에 따라 태어난 독자녀 세대이다. 독자녀 세대의 부모는 1955년 모택동의 지시<sup>31)</sup>에 따라 도시를 떠나 거의 10여 년 동안이나 시골이나 산간벽지에서 노동활동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녀에게만은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심리를 지니고선 자녀를 맹목적으로 귀여워하였다. 그러하기에 독자녀 세대는 이기주의와 자아중심주의를 다른 세대보다 더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孫云曉 1994:23). 본 연구의 통계조사결과에서도 오늘날 여대생들은 국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를 더욱 중시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2. 인생관의 영향 요인

27)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창업하는 열기

28) 외국에 유학가기 위해 대학원생들이 식사과실을 하다가 퇴학하는 풍조

29) 서양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80년대 중반 일어난 유학 열기

30) 임금이 높은 외자기업에서 취직하는 열망

31) 이 지시의 명칭은 ‘지식청년상산하향(知識青年上山下鄉)’이다. 이 지시에 따라 당시 많은 학생들이 도시를 떠나 10여 년 동안이나 시골이나 산간벽지에서 노동 생활을 하였다. 邱新陸은 ‘知識青年上山下鄉’이 20세기 50년대 시작하여 ‘문화’시기에 고조를 이루며 70년대 말 끝났다고 주장했다(邱新陸 2003:24).

‘인생관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가정교육’(56.19%)이 가장 많고 ‘사회환경’(22.96%)이 두 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과 ‘신문 및 서적’ 부분은 각각 6.00%와 3.44%를 차지했다 (<표 5 2-1> 참조).

<표 5 2-1> 변인별로 인생관의 영향요소에 대한 통계

변인별	내용 구분	가정교육	사회환경	학교교육	친구 및 서적	기타	비고
		N%	56.19	22.96	6.00	3.44	
성장 지역	대도시	55(59.8)	22(23.9)	2(2.2)	3(3.3)	10(10.9)	$\chi^2=20.17$ D.F.=12 P<0.05
	중소도시	23(62.2)	7(18.9)	3(8.1)	1(2.7)	3(8.1)	
	농어촌	8(40.0)	6(30.0)	2(10.0)	0(0)	4(20.0)	
	기타	0(0)	2(50.0)	1(25.0)	1(25.0)	0(0)	
소득 수준	중상	16(69.6)	3(13.0)	1(4.3)	1(4.3)	2(8.7)	$\chi^2=11.80$ D.F.=16 P>0.05
	중중	23(62.2)	10(27.0)	2(5.4)	1(2.7)	1(2.7)	
	중하	9(64.3)	2(14.3)	1(7.1)	0(0)	2(14.3)	
	하	3(50.0)	1(16.7)	0(0)	0(0)	2(33.3)	
	기타	35(47.9)	21(28.8)	4(5.5)	3(4.1)	10(13.7)	
보 호 자 적 업	노동자	6(60.0)	3(30.0)	1(10.0)	0(0)	0(0)	$\chi^2=32.42$ D.F.=42 P>0.05
	농민	6(50.0)	3(25.0)	0(0)	0(0)	3(25.0)	
	교사	9(56.3)	3(18.8)	2(12.5)	0(0)	2(12.5)	
	연구원	3(100.0)	0(0)	0(0)	0(0)	0(0)	
	고위공무원	16(76.2)	2(9.5)	0(0)	2(9.5)	1(4.8)	
	자영업	3(50.0)	2(33.3)	0(0)	0(0)	1(16.7)	
	기타	43(50.6)	24(28.2)	5(5.9)	3(3.5)	10(11.8)	

배경변인별 보면 성장지역에 따라 유의(有意)적 차이가 나타났다 ( $P < 0.05$ ). 지역별로 대도시(59.8%)와 중소도시(62.2%) 출신자는 사회요소보다 가정요소에 더 많이 응답한 반면, 농어촌 출신자는 가정요소와 사회요소를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출신자의 가정배경, 성장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계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에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가정교육(55%이상)'에 높은 비율을 드러내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상'과 '중중'등 집안의 여대생이 '중하'와 '하'등 집안의 여대생보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자의 직업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정교육'을 제일 순위로 선택했고, '사회 환경'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30%의 노동자집안 출신자, 25%의 농민집안 출신자, 33.3%의 자영업집안 출신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대생들의 인생관을 결정하는데 기타 여러 사회적 요소보다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주문빈(朱文彬)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표<5-2-2>와 같다. 1987년도 여대생들은 '사회환경'(40.95%), '학교교육'(13.82%)과 '친구와 서적' 등의 요소가 인생관 형성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朱文彬 1987:76).

<표 5-2-2> 1987년과 2004년 여대생 인생관 영향요소 비교

인도 내용	1987년	2004년
가정교육	65(34.57)	85(56.19)
사회환경	77(40.95)	34(22.96)
학교교육	26(13.82)	9(6.00)
친구및 서적	20(10.63)	4(3.44)
기타	0(0.0)	17(11.41)
합계	188명(100%)	153명(100%)

이는 분명 본 통계자료(2004년)와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교육’ 외에 세 가지 문항을 사회적 요소로 생각한다면 87년 여대생의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정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신념과 계급투쟁 의식이 50년대 60년대 청년들의 주류사상으로 간주한다면, 80년대의 청년들은 60년대의 사상적 이념을 포기하고 개혁개방 시기의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려는 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교육보다 토론이나 문예창작 등 사회적 요인이 그들의 새로운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3. ‘삶의 보람’

‘삶의 보람’에 대한 응답을 <표 5 3 1>에서 살펴보면, ‘삶 자체가 삶의 보람(42.08%)’이라는 요인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가정이 화목할 때(25.96%)’라는 요인을 두 번째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가를 즐길 때’와 ‘성과를 거둘 때’라는 요인에 각각 19.27%, 12.6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전공에 따라 유의(有意)적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인문계(48.6%)와 자연계(36.7%)의 여대생 대부분은 ‘삶 자체가 삶의 보람’을 응답한 반면, 예체능계(43.5%)의 여대생들은 ‘여가를 즐길 때’를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44.4%)은 주로 ‘가정이 화목할 때’를 응답한 반면 2학년(28.4%), 3학년(10.0%), 4학년(31.6%)은 주로 ‘삶 자체가 삶의 보람’이라고 응답했다. 소분수준별로 보면 다른 문항보다 ‘삶 자체가 삶의 보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

으나,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화복'에 대한 응답이 많아졌다. 따라서 대부분 여대생들은 '삶의 보람'이 '삶 자체'로 여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5-3-1> '삶의 보람'에 대한 통계

변인별	내 용 구 분	성 과를 거 둘 때	가 정 화복할 때	여 가를 즐 길 때	삶 자체가 '삶의 보람'	비 고
		N%	12.68	25.96	19.27	
소 득 수 준	중상	4(17.4)	7(30.4)	4(17.4)	8(34.8)	$\chi^2=10.73$ D.F.=12 P>0.05
	중중	6(16.2)	8(21.6)	8(21.6)	15(40.5)	
	중하	2(14.3)	3(21.4)	0(0)	9(64.3)	
	하	0(0)	1(16.7)	1(16.7)	4(66.7)	
	기타	7(9.6)	21(28.8)	19(26.0)	26(35.6)	
학 년	1학년	2(22.2)	4(44.4)	1(11.1)	2(22.2)	$\chi^2=10.70$ D.F.=9 P>0.05
	2학년	10(10.5)	27(28.4)	22(23.2)	36(37.9)	
	3학년	4(13.3)	3(10.0)	5(16.7)	18(60.0)	
	4학년	3(15.8)	6(31.6)	4(21.1)	6(31.6)	
신 공	인문계열	6(8.6)	19(27.1)	11(15.7)	34(48.6)	$\chi^2=14.09$ D.F.=6 P<0.05
	자연계열	12(20.0)	15(25.0)	11(18.3)	22(36.7)	
	예체능계열	1(4.3)	6(26.1)	10(43.5)	6(26.1)	

이것을 주문빈(朱文彬)의 연구와 비교해보면<표 5-3-2>, 87년도 여대생 응답자들은 '가정이 화복할 때(34.57%)', '성과를 거둘 때(29.25%)', '여가를 즐길 때(22.87%)', '삶 자체가 삶의 보람(13.29%)'이라는 순으로 응답하였다(朱文彬 1987:77). 이것은 본 연구와 아주 대조적이다. 즉, 87년도 여대생들은 '가정화복' 요인을 삶의 보람으로 느낀 반면 본 연구에

서는 '삶 자체'가 삶의 보람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3-2> 1987년과 2004년 '삶의 보람'의 비교

연도 \ 내용	1987년	2004년
성과를 거둘 때	55(29.25)	18(12.68)
가정이 화목할 때	65(34.57)	38(25.96)
여가를 즐길 때	43(22.87)	29(19.27)
삶의 자체가 삶의 보람	25(13.29)	64(42.08)
합계	188명(100%)	153명(100%)

오늘날 '성취감', '가정화목'과 '여가생활'의 비율이 줄어든 까닭은 현대 중국사회의 치열한 생존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사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족한 시간을 '여가'와 '가정'에 투자하기보다 여대생들은 개인이 삶의 욕구 즉 '삶의 자체'를 더 추구하는 성향을 드러내었다<sup>32)</sup>.

32) 2004년 10월 중국의 신랑(新浪) 웹 사이트(www.sina.com.cn)에서 5000명 사람을 대상으로 시간관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질문 내용은, 첫째 '하루에 대부분 시간이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35.72%가 '바쁘지만 충실하게 보낸다'라고 응답했고, 35.18%는 '무시없이 바쁘다'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일정한 시간에 가장 투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해 '여가생활(24.09%)'을 첫 번째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23.37%)'에 두었다. 셋째, '보람 있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76.43%)'라는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가족, 친구와 같이 보낼 때'라는 항목의 응답률은 6.2%에 불과하다. 이상의 응답에서 나타났듯이 현대 중국인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일을 하기보다 자신의 욕구에 만족하는 일을 하고 싶은 성향을 보여주었다.

#### 4. 인생의 추구대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추구 대상에 대하여 <표 5-4-1>에서 나타났듯이, 현대 중국 여대생들은 '건강(42.73%)'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자유(29.33%)'를 두 번째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애정(7.47%)', '신앙(6.96%)', '학업(5.41%)', '재산(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 1> 인생의 추구대상에 대한 통계

변인 별	내용		재산	애정	자유	건강	학업	신앙	비고
	구분	N%							
		N%	3.11	7.47	29.33	42.73	5.41	6.96	
성 장 지 역	대도시	7(7.6)	3(3.3)	24(26.1)	43(46.7)	5(5.4)	10(10.9)	$\chi^2=18.9$ D.F.=15 P>0.05	
	중소도시	2(5.4)	3(8.1)	7(18.9)	16(43.2)	5(13.5)	4(10.8)		
	농어촌	3(15.0)	4(20.0)	7(35.0)	5(25.0)	0(0)	1(5.0)		
	기타지역	0(0)	0(0)	1(25.0)	3(75.0)	0(0)	0(0)		
학 년	1학년	1(11.1)	1(11.1)	2(22.2)	3(33.3)	1(11.1)	1(11.1)	$\chi^2=7.31$ D.F.=15 P>0.05	
	2학년	6(6.3)	5(5.3)	24(25.3)	44(46.3)	6(6.3)	10(10.5)		
	3학년	3(10.0)	2(6.7)	7(23.3)	14(46.7)	3(10.0)	1(3.3)		
	4학년	2(10.5)	2(10.5)	6(31.6)	6(31.6)	0(0)	3(15.8)		
보 호 자 직 업	노동자	0(0)	0(0)	8(80.0)	1(10.0)	1(10.0)	0(0)	$\chi^2=43.78$ D.F.=30 P<0.05	
	농민	1(8.3)	3(25.0)	3(25.0)	3(25.0)	1(8.3)	1(8.3)		
	교사	3(18.8)	2(12.5)	1(6.3)	9(56.3)	0(0)	1(6.3)		
	연구원	0(0)	0(0)	2(66.7)	1(33.3)	0(0)	0(0)		
	고위공무원	1(4.8)	1(4.8)	7(33.3)	8(38.1)	2(9.5)	2(9.5)		
	자영업	1(16.7)	0(0)	0(0)	5(83.3)	0(0)	0(0)		
	기타	6(7.1)	4(4.7)	18(21.2)	40(47.1)	6(7.1)	11(12.9)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보호자 직업에 따라 유의(有意)적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노동자집안(80.0%)과 연구원집안(66.7%) 출신자가 '건강'을 많이 선택한 반면 자영업집안(83.3%), 교사집안(56.3%)과 고위공무원집안(38.1%) 출신자는 '자유'를 더 많이 선택했다. 성장지역별로 보면 대도시(46.7%)와 중소도시(43.2%) 출신자는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긴 반면 농어촌 출신자(35.0%)는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33.3%), 2학년(46.3%), 3학년(46.7%)은 '건강'을 더 우선시하는 반면 4학년(31.6%)은 자유와 건강을 같은 비율로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즘 가장 추구하는 인생목표가 '건강'이라고 응답한 까닭은 여대생들이 다른 요소보다 자신을 더 중시하는 현실적인 성향을 드러내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여대생들이 '건강'을 더 많이 선택한 까닭은 중국의 사회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50 60년대 당시 중국인의 신앙은 '공산주의의 실현'과 '인류의 해방'이었다. 그러나 중국인은 '문화'기간 동안 인권 유린 현상을 목도(目睹)하면서 중국공산당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에 많은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러한 신념의 혼란에 이어 개혁개방은 서구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공리(功利)주의' 등의 가치관을 중국인에게 심어주었다. 이것은 신념의 혼돈을 가진 많은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여년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중국인들은 과거의 이상적인 '신념'보다 현실적인 개인주의의 성향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요즘 이상적인 '신앙'보다 '건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여대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

## 5. 생활의 고민

생활 속의 고민 내용에 대한 응답(<표 5-5-1>참고)으로는,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이 나쁘다(18.24%)'라는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세상살이가 힘들다(12.21%)'라는 항목에 두 번째 순으로 응답했다. '일이나 공부가 뜻대로 안 된다', '자유시간이 적다', '장래의 불안정한 취직문제'라는 항목에 각각 12.07%, 11.17%, 7.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보면, '성장지역', '학년', '전공'에 따라 유의(有意)적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주로 '세상살이가 힘들다(33.3%)'고 응답했고, 2학년은 주로 '자유시간이 적다(16.7%)'고 응답하였으며, 3학년(16.7%)과 4학년(31.6%)은 주로 '생활이 무미건조하다'고 응답하였다. 전공별로 보면 예체능계 학생들은 주로 '장래의 불안정한 취직문제(21.7%)'라고 응답한 반면, 인문계 학생들은 주로 '생활이 무미건조하다(18.6%)'라고 응답했고, 자연계 학생들은 주로 '자유시간이 적다(25.0%)'라고 응답하였다. 성장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출신자(18.5%)와 농어촌지역 출신자(35.0%)는 대부분 '생활이 무미건조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중소도시 출신자는 '일이나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24.3%)'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세상살이', '학업', '시간부족'이 현대 여대생의 고민거리임을 알 수 있다.

<표 5 5-1> 생활에서 고민하는 내용에 대한 통계

변인 구분	내용	1	2	3	4	5	6	7	8	9	기 타	비고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N%		18.24	6.66	11.17	12.07	3.49	12.21	6.25	7.24	1.72	10.97	
성 장 지 역	대	12	17	17	9	1	6	4	10	1	15	x <sup>2</sup> =50.51 D.F.=27 P<0.01
	도시	(13.0)	(18.5)	(18.5)	(9.8)	(1.1)	(6.5)	(4.3)	(10.9)	(1.1)	(16.3)	
	중소	5	1	4	9	1	8	1	3	2	3	
	도시	(13.5)	(2.7)	(10.8)	(24.3)	(2.7)	(21.6)	(2.7)	(8.1)	(5.4)	(8.1)	
	농 어촌	4	7	0	3	2	20	0	0	0	0	
	기타	(20.0)	(35.0)	(0)	(15.0)	(10.0)	(20.0)	(0)	(0)	(0)	(0)	
	기타	2	0	1	0	0	0	1	0	0	0	
		(50.0)	(0)	(25.0)	(0)	(0)	(0)	(25.0)	(0)	(0)	(0)	
학 년	1학년	1	2	0	0	1	3	1	0	0	1	x <sup>2</sup> =41.45 D.F.=27 P<0.05
		(11.1)	(22.2)	(0)	(0)	(11.1)	(33.3)	(11.1)	(0)	(0)	(11.1)	
	2학년	15	12	20	13	1	12	1	8	1	12	
		(15.8)	(12.6)	(21.1)	(13.7)	(1.1)	(12.6)	(1.1)	(8.4)	(1.1)	(12.6)	
3학년	2	5	2	5	2	3	3	4	2	2		
	(6.7)	(16.7)	(6.7)	(16.7)	(6.7)	(10.0)	(10.0)	(13.3)	(6.7)	(6.7)		
4학년	5	6	0	3	0	0	1	1	0	3		
	(26.3)	(31.6)	(0)	(15.8)	(0)	(0)	(5.3)	(5.3)	(0)	(15.8)		
전 공 예 계	인문	9	13	5	12	4	10	3	6	2	6	x <sup>2</sup> =37.72 D.F.=18 P<0.01
	계열	(12.9)	(18.6)	(7.1)	(17.1)	(5.7)	(14.3)	(4.3)	(8.6)	(2.9)	(8.6)	
	자연	11	10	15	7	0	7	3	2	1	4	
	계열	(18.3)	(16.7)	(25.0)	(11.7)	(0)	(11.7)	(5.0)	(3.3)	(1.7)	(6.7)	
	예 채능	3	2	2	2	0	1	0	5	0	8	
	계열	(13.0)	(8.7)	(8.7)	(8.7)	(0)	(4.3)	(0)	(21.7)	(0)	(34.8)	

위에 1-10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이 나쁘다; 2) 생활이 무미건조하다; 3) 자유시간이 적다; 4) 일·공부가 뜻대로 안 된다; 5) 경제적으로 곤란하다; 6) 세상살이가 힘들다; 7) 사회의 도덕이 아주 문란해졌다; 8) 장래의 귀족문제에 대해서 불안하다; 9) 심각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10) 기타.

### 제 3 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통계조사의 결과와 배경변인에 따른 여대생의 인생관을 살펴봤다. 아울러 시대적 대비를 통해서 여대생 인생관의 변화과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대생들의 인생목표를 살펴보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58.66%)’, ‘개인의 명예를 위해(24.1%)’, ‘국가의 번영을 위해(10.1%)’, ‘운명에 따라(3.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즘 여대생들의 인생목표는 ‘국가의 번영’보다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명예’를 더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둘째, 인생관 형성과정의 영향요소를 살펴보면 ‘인생관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하여 ‘가정교육’(56.19%), ‘사회 환경’(22.96%), ‘학교교육’(6.00%)과 ‘친구 및 서적’(3.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여대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요소보다 가정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삶의 보람’에 있어서 ‘삶 자체가 삶의 보람(42.08%)’, ‘가정이 화목할 때(25.96%)’, ‘여가를 즐길 때(19.27%)’와 ‘성과를 거둘 때(12.68%)’라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여대생들은 ‘성취감’, ‘가정화복’과 ‘여가생활’보다 ‘삶의 자체’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인생의 추구목표’를 살펴보면 ‘건강(42.73%)’, ‘자유(29.33%)’, ‘애정(7.47%)’, ‘신앙(6.96%)’, ‘학업(5.41%)’, ‘재산(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즘 ‘건강’문제는 중국 여대생들이 가장 추구하는 목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의 고민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이

나쁘다(18.24%)', '세상살이가 힘들다(12.21%)', '일이나 공부나 뜻대로 안 된다(12.07%)', '자유시간이 적다(11.17%)', '장래의 불안정한 취직문제(7.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내용은 '건강'이라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 제 5장. 여대생의 직업관

### 제 1절 직업관의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직업이란 인간 개체의 생존 발전과 자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노동 또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한국국민윤리학회 1999:101). Zytowski는 직업가치관은 개인의 정의적 지향과 동일한 정도의 만족을 주는 사회적 환경과 계층간의 중개(仲介)역할을 하는 일련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Zytowski 1970, 류인자 1999:18재인용). 또 J.K Kimmane는 직업 가치관은 특정 직업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하며 이는 가족, 학교, 직업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모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발달한다고 했다(J.K Kimmane 1962, 류인자 1999:18재인용). 학자별 직업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와 같다.

이렇게 생계를 위하여 사회성원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일정한 일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회활동이라고 이해할 때, 성인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상부상조하며 전체 사회의 원활한 영위에 기여하게 된다(송재범 외 2001:199).

<표 6> 학자별 직업관에 대한 정의 비교

학 자 명	직업관의 정의
Zytowski(1970)	개인의 정서적인 방침과 이와 유사한 만족을 제공하는 외부 객체들 사이를 중재하는 개념들의 집합
Super(1973)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개인이 찾는 목적
Pryor(1979)	사람들이 직업에서 좋아하는 또는 선호하는 무엇이다
Dose(1997)	개인이 직업 환경과 관련하여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거나, 선호성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
양한주(1997)	시대에 따른 가변성을 지닌, 직업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관 내지 사고로서 현실적 여건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

출처: 류인자(1999:19)에서 재구성

또한 직업관은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을 의미한다. 개인 또는 사회가 어떤 직업관을 갖느냐는 개인의 진로결정, 직업수행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준다(강재태 외 2000:102). 사회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직업은 경제체제의 개혁에 따라 변화하기에,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정치 중심의 사회체제에서 개혁개방체제로의 이동은 직업 선택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화된 직업선택 기준에서 다원화로 나아가는 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각종 직업의 사회지위나 경제수입 등의 차이는 직업을 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黄志坚 1996:34).

중국여성의 취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계획경제에 따른 분배식(分配式) 취업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여성 취업은 집단주의의 이념에 따라 사회건설로의 참여와 여성해방으로 간주되어,

많은 여성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 둘째, 시장경제에 따른 경쟁적 취업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여성 자신이 가진 취업단절(Schultz 1959:109-117, 장지연 외 2001:18재인용)<sup>33)</sup>의 단점으로 인해 고용주로부터 '저효율' 노동자 취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80년대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여성의 취업문제가 심각해졌다<sup>34)</sup>.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 기초하여 '선호하는 직업', '직업선택조건', '취업조건'의 3 문항을 통해서 현대 여대생 취업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sup>35)</sup>.

## 제 2절 조사결과분석

### 1. 선호하는 직업

선호하는 직업에 대해(<표 7-1 1> 참조) 35.52%의 응답자가 '연구소'라고 응답하였고, 24.05%와 16.47%의 응답자가 '무역회사'와 '자영업'

33) 장지연은 여성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취업의 단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만든 여성이 취업의 단절을 경험하지만 40-50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는 시학력 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장지연 외 2001:18).

34) 현재 중국여성의 취업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 능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 둘째, 여성자신의 취업동기 부족이다. 이로 인해 여성의 직업 추이는 대부분 수평적 이동일 뿐 수직적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劉德中 외 2000:4).

35) 광정림(郭正林)의 1994년 연구에서 여대생 직업관을 '선호하는 직업', '직업선택조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직업관 부문에 있어서 주로 당시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그 연구결과와 대비를 통해서 다루고자한다.

이라고 응답하였다. '합작회사', '정부기관',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10.54%, 9.87%, 3.5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7-1-1>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통계

변인별	내용		부역 회사	자영업	합작 회사	국유 기업	정부 기관	연구소	비고
	구분	N %							
성장 지역	대도시	34(37.0)	22(23.9)	6(6.5)	3(3.3)	2(2.2)	25(27.2)	$\chi^2=35.96$ D.F.=15 P<0.01	
	중소도시	5(13.5)	5(13.5)	4(10.8)	1(2.7)	4(10.8)	18(48.6)		
	농어촌	1(5.0)	3(15.0)	1(5.0)	1(5.0)	4(20.0)	10(50.0)		
	기타지역	1(25.0)	0(0)	2(50.0)	0(0)	0(0)	1(25.0)		
소득 수준	중상	9(39.1)	4(17.4)	0(0)	1(4.3)	1(4.3)	8(34.8)	$\chi^2=23.17$ D.F.=20 P>0.05	
	중중	9(24.3)	12(32.4)	4(10.8)	0(0)	2(5.4)	10(27.0)		
	중하	2(14.3)	3(21.4)	1(7.1)	1(7.1)	2(14.3)	5(35.7)		
	하	1(16.7)	0(0)	0(0)	0(0)	2(33.3)	3(50.0)		
	기타	20(27.4)	11(15.1)	8(11.0)	3(4.1)	3(4.1)	28(38.4)		
학 년	1학년	3(33.3)	2(22.2)	0(0)	1(11.1)	1(11.1)	2(22.2)	$\chi^2=15.63$ D.F.=15 P>0.05	
	2학년	26(27.4)	21(22.1)	5(5.3)	3(3.2)	4(4.2)	36(37.9)		
	3학년	7(23.3)	3(10.0)	6(20.0)	0(0)	4(13.3)	10(33.3)		
	4학년	5(26.3)	4(21.1)	2(10.5)	1(5.3)	1(5.3)	6(31.6)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장지역에 따라 유의(有意)적 차이가 나타났다

( $P < 0.01$ ). 농어촌 지역 출신자(50.0%)와 중소도시 지역 출신자(48.6%)는 안정된 '연구소'를 선호한 반면 대도시 지역 출신자(37.0%)는 퇴출의 위험이 높은 '무역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수준 별로 살펴보면, '중하' 집안과 '하'등 집안 출신자는 안정된 '정부기관'(33.3%)과 '연구소'(50.0%)를 선호한 반면, '중상'과 '중중'집안 출신자는 '무역회사'(39.1%)를 선호하는 편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2학년(37.9%), 3학년(33.3%), 4학년(31.6%)들은 '연구소'를 선호한 반면, 1학년(33.3%)은 '무역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여대생들이 다른 직업보다 연구소를 선호하는 까닭은 높은 여성 실업률에다 취업난에 기인한다. 중국에서 '연구소'란 두 가지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정부 출원기관인 '연구소'이고, 또 하나는 대학 내의 '대학원'이다. 본 조사에서 의도한 '연구소'는 첫 번째에나 의미를 두었으나, 여대생들은 두 번째 의미로 파악한 경향이 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다 포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첫 번째 의미로 '연구소'를 선택했다면, 이는 분명 직업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여대생들이 두 번째의 의미로 선택했다면, 이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제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이후에 좀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맞물려 각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의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있다<sup>36)</sup>.

36) 대학원생 인원 문제는 박영(莫榮)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중국 대학교의 대학원생수가 10년 전보다 4배나 늘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연간 25%씩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 들 가운데 25%는 직장인이었다. 대학원생이 이처럼 많이 늘어난 까닭은 3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산업발전의 수요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학력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사회적 수요에 관련된 연구소가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둘째, 유학열의 감퇴이다. 80년대 중국국내에는 연구소가 많지 않았기에, 대학 졸업 후 계속 연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

이 결과가 다시 곽정림(郭正林)의 비교해보면(<표 7-1-2> 참조), 1994년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무역회사(36.3%)', '자영업(17.7%)', '국유기업(15.2%)', '정부기관(14.4%)', '연구소(5.4%)'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郭正林 1994:4). 이는 논자의 조사 결과와 상당히 대조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표 7-1-2> 1994년과 2004 선호하는 취업조건 비교

문항 \ 시간	1994년	2004년
무역회사	105(36.3)	37(24.05)
자영업	51(17.7)	24(16.47)
합작회사	42(14)	15(10.54)
국유기업	45(15.2)	4(3.55)
정부기관	42(14.4)	13(9.87)
연구소	15(5.4)	53(35.52)
합계	300명(100%)	153명(100%)

출처: 郭正林(1994:4)에서 재인용

90년대 중기 이후 시장경제가 심화됨에 따라 많은 부실기업이 도산

이 외국으로 나가야만 했다. 아울러 이들의 유학을 부추긴 것은 외국 연구소의 충분한 장학금 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국내에도 각 대학마다 연구소가 생겼다. 아울러 국외 대학의 장학금 신청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국내 연구소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지게 되었다. 셋째, 90년대 중기부터 시작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소로 진학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莫榮 2004:20).

되었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졌다. 따라서 '무역회사'나 '자영업'보다는 '연구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직업선택 조건

'직업 선택시 고려조건'(<표 7-2 1> 참조) 문항에서는 '월급(33.52%)' 요인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전공지식(24.55%)', '생활보장(17.33%)', '직장환경(9.94%)', '사회직위(6.53%)', '국외연구기회(6.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대 여대생들은 직업 선택 시 '전공지식'이나 '생활보장'등의 기타 요인보다 '월급' 요인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장지역별로 유의(有意)적 차이가 있었다( $P < 0.05$ ). 성장지역에 따라 대도시의 출신자는 '월급(43.5%)'요인에 더 많이 응답한 반면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출신자는 '생활보장'요인에 더 많이 응답하였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상(34.8%)', '중중(40.5%)', '중하(42.9%)'의 집안 출신자는 '월급' 요인에 더 많이 응답한 반면 '하' 등 집안 출신자는 '생활보장(33.3%)' 요인에 더 많이 응답하였다. 학년별 구분 없이 '월급'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만 4학년인 경우 '월급'과 '전공지식'에 대해 같은 비율의 응답을 드러내었다.

곽정림(郭正林)의 조사(<표 7 2 2>참조)에서, 45.6%의 여대생이 '월급'을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전공지식(16.5%), 직장환경(16.4%)의 순이었다(郭正林 1994:5). 이것은 이번 조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sup>37)</sup>.

37) 대학생의 직업선택 시 고려 조건이 중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80년대 초 대학생들은 주로 집단주의의식 교육을 받아, '사회적 지위'를 가장 중

<표 7 2-1> 직업 선택의 고려조건에 대한 통계

변인 별	내용 구분	월급	진공 지식	직장 환경	사회 직위	생활 보장	국외연 수기회	기타 사항	비고
		N %	33.52	24.55	9.94	6.53	17.33	6.37	
성 장 지 역	대도시	40(43.5)	22(23.9)	13(14.1)	4(4.3)	5(5.4)	4(4.3)	4(4.3)	$\chi^2=30.13$ D.F.=18 P<0.05
	중소도시	9(24.3)	9(24.3)	4(10.8)	1(2.7)	10(27.0)	3(8.1)	1(2.7)	
	농어촌	2(10.0)	6(30.0)	1(5.0)	0(0)	7(35.0)	1(5.0)	3(15.0)	
	기타	0(0)	1(25.0)	0(0)	1(25.0)	2(50.0)	0(0)	0(0)	
소 득 수 준	중상	8(34.8)	5(21.7)	4(17.4)	2(8.7)	2(8.7)	(14.3)	1(4.3)	$\chi^2=18.25$ D.F.=24 P>0.05
	중중	15(40.5)	7(18.9)	4(10.8)	3(8.1)	4(10.8)	3(8.1)	1(2.7)	
	중하	6(42.9)	4(28.6)	0(0)	0(0)	1(7.1)	1(7.1)	2(14.3)	
	하	1(16.7)	1(16.7)	1(16.7)	0(0)	2(33.3)	0(0)	1(16.7)	
	기타	27(37.0)	21(28.8)	10(13.7)	1(1.4)	8(11.0)	3(4.1)	3(4.1)	
학 년	1학년	5(55.6)	2(22.2)	0(0)	0(0)	1(11.1)	1(11.1)	0(0)	$\chi^2=19.40$ D.F.=18 P>0.05
	2학년	36(37.9)	23(24.2)	13(13.7)	4(4.2)	9(9.5)	2(2.1)	8(8.4)	
	3학년	10(33.3)	7(23.3)	5(16.7)	0(0)	4(13.3)	4(13.3)	0(0)	
	4학년	6(31.6)	6(31.6)	1(5.3)	2(10.5)	3(15.8)	1(5.3)	0(0)	

요시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직업선택에 대한 개인적인 의향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주로 국가의 직업 분배에 따라 귀직했다. 개혁개방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 관념은 '자아실현'으로 바뀌었다. 80년대 중기의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월급'을 중시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당시 중등교육수준의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주로 자영업을 중사했고, 고학력 교육수준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했다. 80년대 말에 이르러 대학생들은 취업 조건을 '사회적 지위'보다 '자신의 전공' 관련 여부를 더 많이 추구하였다. 80년대 말과는 달리 90년대 초의 대학생들은 '안정된 직업'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였다. 당시 많은 청년들이 '첫 번째 직업은 안정되고 두 번째 직업은 돈을 벌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많은 지식인들이 제 2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기 대학생들은 '수입'보다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호하였다. 요즘 대학생이 취업에 대하여 다양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학생은 자기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유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여전히 선호하는 동시에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 자기의 사업을 영종하기도 한다(呂靜 2004).

<표7 2·2> 1994년과 2004년 직업선택의 고려조건에 대한 비교

문항	인도	1994년	2004년
월급		135(45.6)	50(33.52)
전공지식		48(16.5)	36(24.55)
직장환경		48(16.4)	13(9.94)
사회지위		21(7.2)	9(6.53)
생활보장		9(3.4)	26(17.33)
국외연구기회		6(2.1)	9(6.37)
기타사항		24(8.8)	9(6.35)
합계		300명(100%)	153명(100%)

출처: 郭正林(1995:5)에서 재인용

### 3. 취업 조건

취업에 필요한 조건에서는 ‘전공지식(46.50%)’ 요인에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활동능력(41.05%)’, ‘외모(7.18%)’, ‘가정배경( 5.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즘 여대생들은 ‘전공지식’을 취업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면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중상(52.2%)’인 여대생들은 다른 문항보다 ‘전공지식’을 더 많이 선택한 반면, ‘중하(57.1%)’인 여대생들은 ‘사회활동능력’ 요인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또 부모의 소득수준이 ‘중중’인 여대생들은 ‘전공지식(45.9%)’과 ‘사회활동능력(45.9%)’를 모두 중시함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높아갈수록 ‘전공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2학년

(43.2%)과 3학년(43.3%)의 경우 '사회활동능력'을 '전공능력'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여대생들은 '전공지식(53.3%)' 요인에 많이 응답한 반면, '중소도시(48.6%)'와 '농어촌(45.0%)' 여대생들은 '전공지식'과 '사회활동능력' 요인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들은 이 두 요소를 취업의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15.0%)' 여대생 일부는 '외모'를 선택하였다. 배경변인별 종합해 보면 '전공지식'과 '사회활동능력' 요인이 현대 여대생의 중요한 취업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가정 배경'과 '외모' 요인 역시 중국사회에서 취업의 한 조건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표 7-3-1> 참조).

<표 7-3-1> 여대생이 취업조건에 대한 통계

변인 변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전공지식 46.50	사회활동 능력 41.05	외모 7.18	가정배경 5.26	
	N %					
성 장 지 역	대도시	49(53.3)	33(35.9)	5(5.4)	5(5.4)	$\chi^2=7.40$ D.F.=9 $P>0.05$
	중소도시	17(45.9)	18(48.6)	2(5.4)	0(0)	
	농어촌	7(35.0)	9(45.0)	3(15.0)	1(5.0)	
	기타지역	2(50.0)	2(50.0)	0(0)	0(0)	
소 득 수 준	중상	12(52.2)	8(34.8)	2(8.7)	1(4.3)	$\chi^2=15.76$ D.F.=12 $P>0.05$
	중중	17(45.9)	17(45.9)	2(5.4)	1(2.7)	
	중하	2(14.3)	8(57.1)	2(14.3)	2(14.3)	
	하	3(50.0)	2(33.3)	0(0)	1(16.7)	
	기타	4(56.2)	27(37.0)	4(5.5)	1(1.4)	
학 년	1학년	4(44.4)	3(33.3)	1(11.1)	1(11.1)	$\chi^2=5.15$ D.F.=9 $P>0.05$
	2학년	45(47.4)	41(43.2)	5(5.3)	4(4.2)	
	3학년	14(46.7)	13(43.3)	2(6.7)	1(3.3)	
	4학년	12(63.2)	5(26.3)	2(10.5)	0(0)	

이 점은 소나(蘇娜)의 연구(<표 7-3-2> 참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결과에서도 '전공지식(46.5%)'이 가장 중요한 취업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蘇娜 1999:14). 이 결과는 본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표 7-3-2> 1999년과 2004년 취업조건에 대한 비교

연도	1999년	2004년
전공지식	138(46.5)	70(46.50)
사회 활동능력	69(23.8)	62(41.05)
외모	63(21.9)	10(7.18)
가정 배경	21(7.8)	7(5.26)
합계	300명(100%)	153(100%)

출처: 蘇娜(1999:14)에서 재인용

'사회활동능력' 요인은 1999년보다 2배정도 늘어 취업의 중요조건으로 인식하는 반면, '외모' 요인에 대해서는 1999년보다 약 3배정도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연구 결과보다 비유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동등한 취업조건을 부여받지 못한 '하' 소득수준의 여대생과 '농어촌'지역 여대생들은 이러한 부정적 취업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현재 여대생들이 '전공지식'과 '사회활동능력'을 취업의 중요수단으로 여기는 한편, 부분적으로나마 '외모'와 '가정배경' 등의 요인도 취업에 일정정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또한 중국부녀연합회(中國婦女聯合會 중부연)와 중국국가통계국(中國

38) 부정적인 취업 요인인 '외모'나 '가정 배경'에 대해 왕춘광(王春光)은 개혁개방을 기치면서 행정적 수단으로 직업을 배분했던 계획경제시대의 취업방식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능력보다는 가정배경·호적제도·외모 등의 부정적인 취업 방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王春光 1995:56)

國家統計局 통계국이 주관하여 실시한 2000년 '제2차 중국여성사회지위조사(<표 7-3-3/4> 참조)를 따르면, 나이가 적을수록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모보다 전공을 더 중요시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젊고도 고학력인 여성들이 '외모'보다 '전공'을 더욱 중요시한 취업조건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본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표 7-3-3> 연령별 외모나 전공이 취업조건에 차지하는 비중

구분	외모	전공	모름
18-34세	27%	65%	8%
35-49세	32%	60%	8%
50-68세	27%	57%	16%

출처: 陳方(2003:94)에서 재인용

<표 7-3-4> 교육수준별 취직할 때 외모나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통계

	외모	전공	모름
문맹	25.8%	54.4%	20%
초등학교	29%	59.3%	11.7%
중학교	29.7%	64%	6.3%
고등학교	28.3%	67.7%	4%
대학교	28%	69.7%	2.3%

출처: 陳方(2003:95)에서 재인용

## 제 3절 소결

본 장에서는 통계조사의 결과와 배경변인에 따른 여대생의 직업관을 살펴봤다. 아울러 시대적 대비를 통해서 여대생 직업관의 변화과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대생들은 선호하는 직업에 있어서 '연구소(35.52%)', '무역회사(24.05%)', '자영업(16.47%)', '합작회사(10.54%)', '정부기관(9.87%)', '국유기업(3.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즘 여대생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성향을 드러내었다.

또, 직업선택의 고려조건에 있어서 '월급(33.52%)', '전공지식(24.55%)', '생활보장(17.33%)', '직장환경(9.94%)', '사회직위(6.53%)', '국외연구기회(6.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대 여대생들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기타 요인보다 '월급'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조건에 있어서 '전공지식(46.50%)', '사회활동능력(41.05%)', '외모(7.18%)', '가정배경( 5.2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요즘 여대생들은 '전공지식'을 취업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점이 변화 없음을 알 수 있다.

## 제 6장. 여대생의 결혼관

### 제 1절 결혼관의 이론적 배경

성인남녀는 이성교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원하는 선택이 이루어지면 결혼에 이르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결혼이란 그 형식과 절차를 달리한다고 해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인생의 한 부분이다. 또 결혼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남녀의 행위로 법적, 도덕적 의식이다. 따라서 관습이나 법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한다(이정덕 외 1998:135). 결혼관이란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규범 및 관념을 의미한다. 이 때 규범이란 가치관에서 유래되는 행동 지침을 가리키고, 그런 행동에 대해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며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범 및 관념은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인 여러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변용되고, 사회의 신분적 및 계급적 관계가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한 규범 및 관념의 내용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결혼관은 개인에게 결혼과정에서의 배우자선택 및 결혼 후의 생활계획에 관련된 행동유형을 결정하는 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관의 내용은 대체로 결혼의 목적과 동기, 배우자 선택조건 및 방법, 결혼과정 및 결혼 후 생활계획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된다(정현아 1984:17).

20년 동안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된 이래, 중국사회의 가치관 가운데 여성의 결혼 관념은 가장 많은 변화를 드러내었다<sup>39)</sup>. 여성이 선호하는 결혼 상대자를 시대별로 보면 이런 변화의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50년대 해방 초기에 그들은 ‘혁명투사’를 선호하였고, 60-70년대의 ‘문화

39) 범해연(范海燕)은 결혼관 변화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결혼관은 인생관이나 직업관 등 심층적인 가치관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치관이기에 그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혼인은 중국전통사회에서 자신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나 주위의 압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었다. 셋째, 개혁개방이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혼인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한 측면으로 이르게 되었다(范海燕 2001:19)

시기)에는 ‘홍오류(紅五類)<sup>40)</sup>’를 선호하였으며, 80년대 개혁초기에 그들이 선호한 대상은 ‘고위 공무원’이었다. 90년대 개혁중기에는 ‘서양사람’을 선호하였으며, 오늘날에는 ‘개인사업자’로 바뀌었다(何清漣 2001:8). 이처럼 여성의 결혼상대자에 대한 선호의식 변화는 곧 여성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한다. ‘혁명분자’·‘홍오류(紅五類)’·‘고위 공무원’을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간주한다면, ‘서양사람’과 ‘개인사업자’는 바로 부의 상징이 된다. 요즘 유행하는 ‘좋은 직업보다 시집을 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干得好不如嫁好]’는 관념은 바로 대부분 중국 여성의 결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결혼 적령기 여성의 결혼관이 사회적 지위보다 현실적인 물질 풍요를 더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여 여대생들의 결혼관을 ‘직업과 가정의 관계’, ‘혼인과 직업의 관계’, ‘결혼의 필요성’, ‘배우자의 교육수준’, ‘결혼상대의 조건’, ‘결혼의 시기’, ‘배우자의 결정권’, ‘결혼 후 취업’ 8 가지 문항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sup>41)</sup>.

## 제 2절 조사결과분석

### 1. 직업과 가정에 대한 비중

40) 홍오류(紅五類)란 문혁시기 모택동을 옹호한 학생 조직-홍위병, 노동자, 민중, 하층중농 및 혁명자로 구성된다.

41) 진방(陳方)의 2003년 연구에서 여대생결혼관을 ‘직업과 가정의 관계’, ‘혼인과 직업의 관계’, ‘배우자의 결정권’, ‘결혼 후 취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혼관 부분에 있어서 주로 당시의 설문분항을 참고하여 그 연구결과와 대비를 통해서 다루고자 한다.

직업과 가정에 대한 비중(<표 8-1-1> 참조)에 있어서, 90%의 응답자가 '직업과 가정에 다 충실'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정에만 충실(3.81%)', '나 자신에만 충실(2.96%)', '직업에만 충실(1.81%)'의 비율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보면 가계의 소득수준, 학년별, 보호자의 직업별의 구별 없이 모두다 '직업과 가정에 다 충실'이라고 응답했다. 단지 노동자집안의 몇몇 응답자(20%)만 '가정에만 충실'이라고 선택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여대생들은 '직업'과 '가정'에 다 충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1-1> 직업과 가정 비중에 대한 통계

변인 구분 별	내용 N %	직업에 만 충실 1.71	가정에 만 충실 3.81	직업과 가정 다 충실 91.80	자신에 만 충실 2.69	비고
소득수준	중상	0(0)	1(4.3)	20(87.0)	2(8.7)	$\chi^2=24.06$ D.F.=12 P>0.05
	중중	0(0)	0(0)	36(97.3)	1(2.7)	
	중하	0(0)	2(14.3)	11(78.6)	1(7.1)	
	하	0(0)	0(0)	6(100.0)	0(0)	
	기타	3(4.1)	0(0)	70(95.9)	0(0)	
학년	1학년	1(11.1)	1(11.1)	7(77.8)	0(0)	$\chi^2=19.42$ D.F.=9 P>0.05
	2학년	0(0)	1(1.1)	92(96.8)	2(2.1)	
	3학년	1(3.3)	0(0)	29(96.7)	0(0)	
	4학년	1(5.3)	1(5.3)	15(78.9)	2(10.5)	
보호자 직업	노동자	0(0)	2(20.0)	8(80.0)	0(0)	$\chi^2=27.82$ D.F.=18 P>0.05
	농민	0(0)	0(0)	12(100.0)	0(0)	
	교사	0(0)	0(0)	16(100.0)	0(0)	
	연구원	0(0)	0(0)	3(100.0)	0(0)	
	고위공무원	0(0)	1(4.8)	18(85.7)	2(9.5)	
	사업가	0(0)	0(0)	6(100.0)	0(0)	
	기타	3(3.5)	0(0)	80(94.1)	2(2.4)	

이처럼 여성들이 '직업'과 '가정'에 모두 충실하게 된 까닭은 중국정부가 시행했던 여성의 취업정책과 관련이 있다. 1949년 건국이후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공업 발전 정책을 우선시하였다. 당시 대규모의 중공업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남성노동력을 동원하는 동시에 전 사회에나 '남녀평등' 의식을 선전함으로써 여성노동력도 생산대열에 동원하려고 애썼다<sup>12)</sup>. 이로 인해 당시 '가사와 자녀교육'에만 종사했던 여성들에게 직업에 대한 열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로부터 여성은 '가정'에 충실하고 또 사회 참여로써의 '직업'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楊善華 1999:54). 따라서 요즘 대부분 여대생들은 여전과 변함없이 취업을 원하는 동시에 가정에도 충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0년 중부연과 통계국에서 실시한 '제 1 차 중국부녀사회지위 조사'에서 '직업과 가정'의 문항에 대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보

12) <표 8-1-2>에서 알 수 있듯이, 1949년부터 1977까지 28년 동안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8-1-2> 1949-1977년全民소유제 여직공인원수성장변화

연도	全民소유제		여직공비율 (%)	증가 비율(%)	비고
	직공총수(만)	여직공총수(만)			
1949	800	60.0	7.5		1 대약진시기:
1952	1580	184.8	11.7	308.0	여직공비율 대
1957	2451	328.6	13.4	100.6	량 증가 23%
1958.1	4532	810.8	17.9	246.7	년 자연 재앙:여
1959	4561	848.8	18.6	104.7	직공의 대량
1960	5044	1008.7	20.0	118.8	감소 3분화대
1961.2	4171	886.8	21.3	87.9	혁명시기:여직
1962	3309	673.8	20.4	76.0	공에 대한 불
1965	3738	786.1	21.0	111.7	계자료가 없다.
1966-1976 <sup>3)</sup>	부	부	부	부	
1977	7196	2036.0	28.3	259.0	

자료출처: 中國勞動統計局(1988)

나 직업에 대해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8-1-2> 참조). 특히 당시 여대생들이 '가정(14.7%)'보다 '직업(85.2%)'을 더 중요시한 결과는 본 연구조사와 차이점을 드러낸다. 즉, 현재 여대생들은 '가정'과 '직업'을 모두 중시한 반면 90년대 여대생들은 '직업'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표 8-1-3> '직업과 가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수준별 분포

선택조항	문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	56.7	57	77.1	82.7	85.2
가정	43.1	33.8	22.8	16.4	14.7
무응답	0.2	0.5	0.1	0.4	0.0

출처: 陳方(2003:37)에서 재인용

## 2. 혼인과 직업의 관계

'좋은 직업보다 시집을 잘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관념에 대해 '동의한다(40.26%)'라는 문항을 많이 응답하였고, '그다지 동의하지 않다(36.08%)'라는 문항을 두 번째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각각 18.01%와 2.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동의하는 비율이 42.53%이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54.09%로 나타나, 그들은 상술한 의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가계의 소득수준이 유의(有意)적 차이를 보

였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이 관념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드러낸 반면, 낮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P < 0.01$ ). 또 보호자 직업별로 살펴보면 ‘노동자집안(40.0%)’, ‘고위공무원(61.9%)’집안의 출신자는 이 관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성향을 드러낸 반면, ‘교사 집안(50.0%)’, ‘연구원 집안(66.7%)’, ‘사업가 집안(50.0%)’의 출신자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성장지역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구분 없이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요즘 여대생들은 ‘취직하기보다 시집 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관념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집안의 여대생들은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2-1> 참조).

한편 중부연과 통계국에서 실시한 ‘제2차 중국여성사회지위조사(표 8 2 2> 참조)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이 관념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62.6%)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또 교육수준별(<표 8 2 3> 참조) 조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드러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여성은 결혼보다 자기의 직업을 더욱 중시함과 동시에 독립 경향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표 8-2-1> 취업보다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통계

변인별	내용	아주 동의한다		그나지 동의하지 않는다		비고
	구분	2.27	40.26	36.08	18.01	
	N %					
성 장 지 역	대도시	2(2.2)	27(29.3)	50(54.3)	13(14.1)	$\chi^2=0.19$ D.F.=9 P>0.05
	중소도시	0(0)	13(35.1)	18(48.6)	6(16.2)	
	농어촌	1(5.0)	6(30.0)	5(25.0)	8(40.0)	
	기타	0(0)	2(50.0)	2(50.0)	0(0)	
소 득 수 준	중상	2(8.7)	9(39.1)	10(43.5)	2(8.7)	$\chi^2=41.34$ D.F.=12 P<0.01
	중중	0(0)	12(32.4)	20(54.1)	5(13.5)	
	중하	0(0)	4(28.6)	1(7.1)	9(64.3)	
	하	0(0)	5(83.3)	1(16.7)	0(0)	
	기타	1(1.4)	18(24.7)	43(58.9)	11(15.1)	
보 호 자 직 업	노동자	0(0)	3(30.0)	4(40.0)	3(30.0)	$\chi^2=28.05$ D.F.=18 P>0.05
	농민	0(0)	5(41.7)	2(16.7)	5(41.7)	
	교사	0(0)	8(50.0)	5(31.3)	3(18.8)	
	연구원	0(0)	2(66.7)	0(0)	1(33.3)	
	고위공무원	0(0)	6(28.6)	13(61.9)	2(9.5)	
	사업가	1(16.7)	3(50.0)	2(33.3)	0(0)	
	기타	2(2.4)	21(24.7)	49(57.6)	13(15.3)	

<표 8-2-2> 취업보다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연령별 인식 비율

	연령별			합계
	18-34	35-49	50-68	
아주 동의한다	9.9	12.8	13.3	11.8
동의한다	22.4	27.3	27.8	25.5
그나지 동의하지 않는다	36.2	34.1	30.0	34.2
동의하지 않는다	26.4	21.3	19.6	23.0
모름	5.1	4.5	9.2	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陳方(2003:141)에서 재인용

<표 8 2 3> 결혼과 직업의 관계에 따른 교육수준별 차이

	교육수준					합계
	문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주 동의한다	14.4	13.5	10.8	9.5	5.8	11.7
동의한다	31.1	28.3	23.3	21.4	17.3	25.4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33.4	31.9	35.8	37.4	37.1	34.3
동의하지 않는다	12.0	19.3	26.6	27.9	38.0	23.1
모름	9.2	7.0	3.5	3.9	1.8	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陳方(2003:143)에서 재인용

### 3.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표 8 3> 참조) 30.70%의 여대생이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39.23%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하면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안 해도 괜찮다'와 '능력만 있으면 안 해도 된다'의 응답은 각각 13.05%와 15.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대생들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장지역에 따라 대부분의 응답자는 '능력만 있으면 안 해도 괜찮다'와 '안 해도 괜찮다'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야 한다'와 '꼭 해야 한다'의 문항을 더 많이 선택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보호자의 직업별 보면, '노동자'집안의 여대생 중 50%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고 응답했고 '결혼을 해도 괜찮다'의 문항에 대해서 농민, 고위공무원, 교사, 사업가집안의 출신자는 각각 41.7%, 47.6%와 50.0%, 50.0%로 응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8-3> 결혼의 필요성 비율

변인별	구분	내용	특별한 경우가	능력만	안 해도 괜찮다	비고
		꼭 해야 한다	아니면 해야 한다	있으면 안 해도 괜찮다		
		N %	30.70	39.23	13.05	16.25
성 장 지 역	대도시	30(32.6)	36(39.1)	11(12.0)	15(16.3)	$\chi^2=2.90$ D.F.=9 P>0.05
	중소도시	12(32.4)	16(43.2)	5(13.5)	4(10.8)	
	농어촌	5(25.0)	9(45.0)	3(15.0)	3(15.0)	
	기타지역	2(50.0)	1(25.0)	1(25.0)	0(0)	
보 호 자	노동자	5(50.0)	2(20.0)	0(0)	3(30.0)	$\chi^2=15.37$ D.F.=18 p>0.05
	농민	4(33.3)	5(41.7)	2(16.7)	1(8.3)	
	교사	4(25.0)	8(50.0)	2(12.5)	2(12.5)	
직 업	연구원	1(33.3)	0(0)	0(0)	2(66.7)	$\chi^2=15.37$ D.F.=18 p>0.05
	고위공무원	7(33.3)	10(47.6)	2(9.5)	2(9.5)	
	사업가	1(16.7)	3(50.0)	1(16.7)	1(16.7)	
	기타	27(31.8)	34(40.0)	13(15.3)	11(12.9)	

2003년 1월 북경시 부녀연합회에서 월수입 5,000-15,000위엔 정도의 화이트 컬러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과 '결혼'의 비중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과 무역에 종사하는 화이트 컬러 여성 가운데 75.3%가 독신을 원하는 응답을 선택하였다<sup>43)</sup>.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대조적이다. 즉, 화이트 컬러 여성들은 여대생보다 '직업'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신분에 따른 차이, 즉 '취업'

43) Hochschild의 사회네트워크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육아와 가사에 책임을 지야 하기에 남성보다 취업하는데 불리한 요소가 많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결혼이나 가정으로 인한 불리한 요소를 피하기 위해 독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였다(Hochschild 1989).

과 '결혼'에 대한 직장 여성의 현실성과 여대생의 이상성 간의 인식 차이로 볼 수 있다.

#### 4. 배우자의 교육수준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대하여 (<표 8-4> 참조) 33.88%의 여대생이 '나와 같은 사람', 49.31%의 여대생이 '나보다 높은 사람', 16.16%의 여대생이 '개의치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전공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인문계열 여대생(60%)과 예체능계열 여대생(52.2%)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 응답한 반면, 자연계열 여대생(50%)은 '나와 같은 사람'에 응답하였다. 가계의 소득수준별 보면 대부분 '나와 같은 사람'보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많이 나타났다. 단지 소득이 '중상'인 집안의 여대생들은 거의 같은 비율을 드러내고 있다. 성장지역별로 보면 지역 구분 없이 대부분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중소도시의 출신자는 '나보다 높은 사람'과 '나와 같은 사람'에 각각 45.9%와 43.2%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요즘 여대생들은 자기의 학력보다 더 높은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4>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대한 통계

변인 인별	내용 구분	나보다 높은	나와 같은	상관없다	비고
		사람 49.31	사람 33.88	16.81	
성 장 지 역	대도시	45(48.9)	34(37.0)	13(14.1)	$\chi^2=6.03$ D.F.=6 P>0.05
	중소도시	17(45.9)	16(43.2)	4(10.8)	
	농어촌	9(45.0)	7(35.0)	4(20.0)	
	기타	2(50.0)	0(0)	2(50.0)	
소 득 수 준	중상	11(47.8)	12(52.2)	0(0)	$\chi^2=11.06$ D.F.=8 P>0.05
	중중	22(59.5)	9(24.3)	6(16.2)	
	중하	6(42.9)	5(35.7)	3(21.4)	
	하	4(66.7)	2(33.3)	0(0)	
	기타	30(41.1)	29(39.7)	14(19.2)	
전 공	인문계열	42(60.0)	21(30.0)	7(10.0)	$\chi^2=12.23$ D.F.=4 P<0.05
	자연계열	19(31.7)	30(50.0)	11(18.3)	
	예체능계열	12(52.2)	6(26.1)	5(21.7)	

### 5. 결혼상대의 조건

결혼상대의 조건(<표 8 5> 참조)에 대한 조사에서, 71.58%의 여대생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였고, 19.88%는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으며,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됨'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각각 2.94%, 5.28%로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따른 변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요인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교사, 연구원, 사업가인 여대생들은 '나보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항목에 각각

43.8%, 33.3%, 33.3% 정도 응답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 비율 보다는 조금 낮지만, 이 항목 역시 결혼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성장지역별 보면 응답자 구분 없이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항목을 많이 선택하였다. 기타 대도시지역의 출신자(26.1%)와 농어촌지역의 출신자(15.0%)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요소를 선택하였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응답자 구분 없이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문항을 많이 선택하였다. '중상' 집안인 경우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선택했지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의 선택 비율(34.8%)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요즘 중국 여대생들은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데 상대방의 능력보다 자신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여대생들은 결혼상대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5> 결혼상대에 대한 통계

변인별	내용	능력이 있어야함	능력이 없어 도됨	나를 사랑 하는 사람	내가사랑 하는 사람	비고
	구분	19.88	2.94	71.58	5.28	
성 장 지 역	대도시	24(26.1)	2(2.2)	55(59.8)	11(12.0)	$\chi^2=18.74$ D.F.=17.1 P>0.05
	중소도시	2(5.4)	0(0)	32(86.5)	3(8.1)	
	농어촌	3(15.0)	2(10.0)	15(75.0)	0(0)	
	기타	0(0)	0(0)	4(100.0)	0(0)	
수 득 수 준	중상	8(34.8)	0(0)	11(47.8)	4(17.4)	$\chi^2=13.10$ D.F.=12 P>0.05
	중중	8(21.6)	1(2.7)	26(70.3)	2(5.4)	
	중하	3(21.4)	1(7.1)	10(71.4)	0(0)	
	하	1(16.7)	0(0)	5(83.3)	0(0)	
	기타	9(12.3)	2(2.7)	54(74.0)	8(11.0)	
보 호 자 식 업	노동자	2(20.0)	2(20.0)	6(60.0)	0(0)	$\chi^2=30.44$ D.F.=42.5 P>0.05
	농민	0(0)	0(0)	12(100.0)	0(0)	
	교사	7(43.8)	0(0)	8(50.0)	1(6.3)	
	연구원	1(33.3)	0(0)	2(66.7)	0(0)	
	고위공무원	4(19.0)	0(0)	13(61.9)	4(19.0)	
	원	4(19.0)	0(0)	13(61.9)	4(19.0)	
	사업가	2(33.3)	0(0)	4(66.7)	0(0)	
기타	13(15.3)	2(2.4)	61(71.8)	9(10.6)		

## 6. 결혼의 시기

결혼의 시기(<표 8-6> 참조)에 대해, 51.79%의 여대생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출 때'를 응답하였고, 19.07%는 '적령기에 해야 한다'고 응답

했으며,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게 되면'과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의 문항에 대해 각각 13.73%, 14.19%로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 구분 없이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갖출 때'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다만 전공에 따라 26.7%의 자연계 학생과 21.7%의 예체능계의 학생은 '적령기에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성장 지역별에 있어서도 25.0%의 농어촌 집안의 여대생이 '적령기에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0.7%의 대도시지역의 출신자는 '이상적인 상대를 만날 때'를 선택하였다. 소득수준별에 있어서도 25%의 농어촌지역의 출신자는 '적령기에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 시기'에 대한 여대생들의 경향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출 때'의 요소를 많이 선호하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현대 여대생들이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적령기' 등과 같은 요소보다 경제적인 능력 더욱 중시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표 8-6> 결혼시기에 대한 통계

변인별	내용 구분	결혼 적령기에 N %	경제적인 여유를 갖출 때 51.79	이상적인 상대를 만날 때 14.93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14.19	비고				
							19.07	19.07	19.07	19.07
성 장 지 역	대도시	18(19.6)	44(47.8)	19(20.7)	11(12.0)	$\chi^2=7.65$ D.F.=9 P>0.05				
	중소도시	4(10.8)	18(48.6)	6(16.2)	9(24.3)					
	농어촌	5(25.0)	11(55.0)	3(15.0)	1(5.0)					
	기타	1(25.0)	2(50.0)	0(0)	1(25.0)					
학 년	1학년	2(22.2)	3(33.3)	2(22.2)	2(22.2)	$\chi^2=10.57$ D.F.=9 P>0.05				
	2학년	17(17.9)	45(47.4)	19(20.0)	14(14.7)					
	3학년	2(6.7)	20(66.7)	5(16.7)	3(10.0)					
	4학년	7(36.8)	7(36.8)	2(10.5)	3(15.8)					
진 공	인문계열	7(10.0)	42(60.0)	10(14.3)	11(15.7)	$\chi^2=13.13$ D.F.=14 P>0.05				
	자연계열	16(26.7)	20(33.3)	15(25.0)	9(15.0)					
	예체능계열	5(21.7)	13(56.5)	3(13.0)	2(8.7)					

## 7. 배우자의 결정

‘배우자의 결정에 있어서도 ‘본인 결정한 후 부모의 허락(54.87%)’이라는 문항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본인 결정(33.66%)’, ‘부모 허락한 후 본인 결정(5.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살펴보면 여대생의 성장지역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여대생은 ‘본인이 결정한 후 부모의 허락’의 문항에 각각 60.9%와 59.5% 응답한 반면, 농어촌의 출신 여대생은 ‘본인이 결정한 후 부모의

허락'과 '본인의 결정'의 분항에 같은 비율(45.0%)로 응답하였다. 가계의 소득수준별로 보면 '중상(65.2%)', '중중(56.8%)', '하(66.7%)'인 집안의 출신자는 '본인 결정한 후 부모의 허락'의 요소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반면, 중하(57.1%)등 집안의 출신자는 '본인 결정'에 대한 응답률이 많은 편이다. 보호자직업에 따라 살펴보면 대부분 교사(62.5%), 연구원(33.3%), 고위공무원(71.4%), 자영업(66.7%)집안의 출신자들은 '본인이 결정한 후 부모의 허락'을 응답한 반면, 노동자(50.0%)와 농민(58.3%) 집안의 출신자는 '본인 결정'에 대한 응답률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현대 여대생들이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본인 결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7 1> 참조).

이것은 중부연과 통계국에서 실시한 '제2회 중국여성사회지위조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표 8 7 2> 참조),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독립적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는 의식이 강한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당사자보다는 부모의 결정에 따르는 쪽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이 배우자 결정권에 대한 세대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젊은 세대는 자유결혼의 의식이 강한 반면 노년 세대는 아직까지 중매결혼의 전통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 교육수준별 배우자 결정권(<표 8 7 3> 참조)에 대한 조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선택 의식이 강한 반면 낮을수록 이러한 의식이 약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학력의 젊은 여성(여대생 포함)은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7-1> 배우자의 결정에 대한 통계

변인별	내용	부모의 허락	부모 허락 후, 본인 결정	본인 결정 후, 부모 허락	본인의 결정	비고
	구분					
	N %	0.47	6.17	58.76	34.60	
성장 지역	대도시	0(0)	4(4.3)	56(60.9)	32(34.8)	$\chi^2=9.22$ D.F.=9 P>0.05
	중소도시	0(0)	3(8.1)	22(59.5)	12(32.4)	
	농어촌	1(5.0)	1(5.0)	9(45.0)	9(45.0)	
	기타	0(0)	0(0)	3(75.0)	1(25.0)	
소득 수준	중상	0(0)	3(13.0)	15(65.2)	5(21.7)	$\chi^2=13.24$ D.F.=12 P>0.05
	중중	0(0)	4(10.8)	21(56.8)	12(32.4)	
	중하	0(0)	0(0)	6(42.9)	8(57.1)	
	하	0(0)	0(0)	4(66.7)	2(33.3)	
	기타	1(1.4)	1(1.4)	44(60.3)	27(37.0)	
보호 자 직업	노동자	0(0)	1(10.0)	4(40.0)	5(50.0)	$\chi^2=20.55$ D.F.=18 P>0.05
	농민	0(0)	0(0)	5(41.7)	7(58.3)	
	교사	0(0)	3(18.8)	10(62.5)	3(18.8)	
	연구원	0(0)	0(0)	2(66.7)	1(33.3)	
	고위공무원	0(0)	2(9.5)	15(71.4)	4(19.0)	
	사업가	0(0)	1(16.7)	4(66.7)	1(16.7)	
	기타사항	1(1.2)	1(1.2)	50(58.8)	33(38.8)	

<표 8-7-2> 연령별 배우자의 결정에 대한 통계

	부모의 허락	부모 허락한 후 본인결정	본인 결정한 후 부모허락	본인 결정
18-34	4.8	16.2	36.8	23.1
35-49	13.6	26.7	35.4	23.5
50-68	28.9	25.4	24.1	19.5

출처: 陳方(2003:146)에서 재인용

<표 8-7-3> 교육수준별 배우자결정권에 대한 통계

	부모의 허락	부모 허락한 후 본인결정	본인 결정한 후 부모허락	본인 결정
문맹	35.6	30.1	14.5	17.6
초등학교	15.7	29.1	20.8	30.7
중학교	6.5	18.8	25.0	38.8
고등학교	3.8	11.7	27.3	46.7
대학교	1.4	1.4	31.5	46.6

출처: 陳方(2003:147)에서 재인용

## 8. 결혼 후 취업

결혼한 후 취업문제(<표 8-8-1> 참조)에 대한 조사에서 90.0% 이상의 응답자가 '원하다'라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장지역, 가계의 소득수준, 보호자의 직업에 관계 없이 거의 '원하다'라는 항목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대 중국 여대생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8-1> 결혼 후 취업에 대한 통계

변인별	내용 구분	원하다		원하지 않는다		남편의 의견에 따라서	남편의 수입을 봐서	비교
		95.15	1.51	0.47	2.88			
성 장 지 역	대도시	89(96.7)	0(0)	0(0)	3(3.3)	$\chi^2=12.63$ D.F.=9 P>0.05		
	중소도시	36(97.3)	1(2.7)	0(0)	0(0)			
	농어촌	18(90.0)	1(5.0)	1(5.0)	0(0)			
	기타	4(100.0)	0(0)	0(0)	0(0)			
소 득 수 준	중상	22(95.7)	0(0)	0(0)	1(4.3)	$\chi^2=9.42$ D.F.=12 P>0.05		
	중중	35(94.6)	2(5.4)	0(0)	0(0)			
	중하	14(100.0)	0(0)	0(0)	0(0)			
	하	6(100.0)	0(0)	0(0)	0(0)			
	기타	70(95.9)	0(0)	1(1.4)	2(2.7)			
보 호 자 직 업	노동자	10(100.0)	0(0)	0(0)	0(0)	$\chi^2=23.95$ D.F.=18 P>0.05		
	농민	12(100.0)	0(0)	0(0)	0(0)			
	교사	15(93.8)	1(6.3)	0(0)	0(0)			
	연구원	2(66.7)	0(0)	0(0)	1(33.3)			
	고위공무원	20(95.2)	1(4.8)	0(0)	0(0)			
	사업가	6(100.0)	0(0)	0(0)	0(0)			
기타	82(96.5)	0(0)	1(1.2)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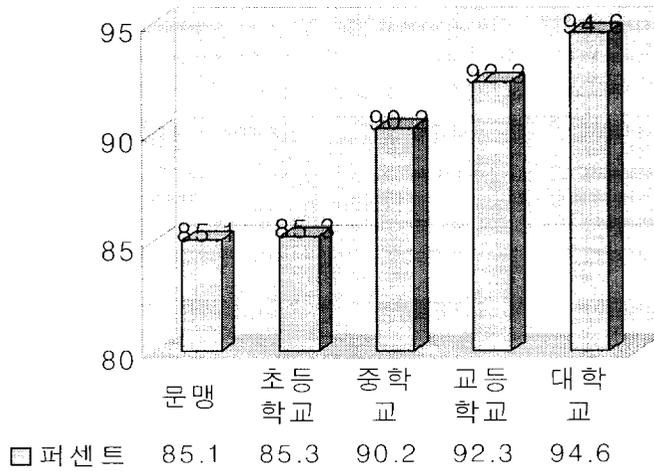
중부연과 통계국에서 실시한 제1차(1990년)와 제2차(2000년)중국여성 사회지위조사(<표 8 8 2>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 후 취업에 대해 '원한다'라는 비율(90.40%)이 중·노년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교육수준별(<표 8 8 3> 참조)로 살펴볼 때, 고학년 여성일수록 결혼 후 취업을 더욱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8 2> 도농별, 연령별 여성의 결혼 후 취업에 대한 통계

연령	도시	농촌
18-24	90.40	90.10
35-39	83.60	89.70
50-68	78.70	83.00
합계	85.00	88.90

출처: 陳方(2003:149)에서 재인용

<표 8·8 3> 교육수준별 결혼 후 취업에 대한 통계



출처: 陳方(2003:150)에서 재인용

### 제 3절 소결

본 장에는 통계조사의 결과와 배경변인에 따른 여대생의 결혼관을 살펴 보았다. 아울러 시대적 대비를 통해서 여대생 결혼관의 변화과정과 원

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대생들의 '직업과 가정에 대한 비중'에 대한 조사에서 '직업과 가정에 다 충실(90%)', '가정에만 충실(3.81%)', '나 자신에만 충실(2.96%)', '직업에만 충실(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여대생들은 '가정'과 '직업'을 모두 중시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취직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비율이 '동의한다(40.26%)', '그다지 동의하지 않다(36.08%)', '동의하지 않다(18.01%)'와 '매우 동의한다(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즘 여대생들은 '취직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념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취하고 있다.

셋째,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은 '결혼은 꼭 해야 한다(30.70%)',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하면 한다(39.23%)', '안 해도 괜찮다(13.05%)'와 '능력만 있으면 안 해도 된다(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대생들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대한 응답비율은 '나와 같은 사람(33.88%)', '나보다 높은 사람(49.31%)', '개의치 않는다(16.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여대생들은 자기의 학력보다 더 높은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결혼상대의 조건'에 대한 응답비율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71.58%)',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19.88%)', '내가 사랑하는 사람(5.28%)',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된다(2.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여대생들은 결혼상대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결혼의 시기'에 대한 응답비율은 '강제적인 여유를 갖출 때(51.79%)', '적령기에 해야 한다(19.07%)',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14.19%)',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게 되면(13.7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대 여대생들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직령기' 등 요소보다 경제적인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배우자의 결정'에 대한 응답비율은 '본인 결정한 후 부모의 허락(54.87%)', '본인 결정(33.66%)', '부모 결정한 후 본인 결정(5.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여대생들이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본인 결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결혼 후 취업'에 대하여 90.0% 이상의 응답자가 '원한다'라는 문항에 선택하였다. 따라서 1990년 2000년과 2004년의 대부분 여대생들은 '결혼 후 취업'을 '원한다'는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7장. 결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문혁’, ‘진리·표준토론’, ‘개혁 개방’ 등 역사적인 사건을 거쳤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인의 가치관 변화에 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치관의 변화는 곧 그 사회 현상의 반영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사회의 일단면을 반추할 수 있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현대 중국 여대생이 지니고 있는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그들의 가치관 변화과정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대 중국 여대생의 인생관을 살펴보면, 우선 조사 대상자들은 ‘인생 목표’에 있어 ‘국가의 번영을 위해(10.1%)’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58.66%)’와 ‘개인의 명예를 위해(24.1%)’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배경변인별로도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행복’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87년도 여대생의 ‘인생목표’는 ‘국가(38.30%)’와 ‘개인(35.10%)’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중시하였다. 따라서 현대 중국 여대생들의 인생목표는 87년대 여대생들보다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명예’를 더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둘째, ‘인생관 형성과정의 영향요소’에 있어서 ‘가정교육’(56.19%), ‘사회 환경’(22.96%), ‘학교 교육’(6.00%)과 ‘친구 및 서적’(3.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대부분 조사 대상자는 ‘사회요소’(사회 환경, 학교교육, 친구 및 서적)보다 ‘가정교육’을 더 많이 응답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87년도 여대생은 가정요소(34.57%)보다 사회 요소(‘사회 환경(40.95%)’, ‘학교교육(13.82%)’과 ‘친구와 서적(10.63%)’)를 더 많이 응답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인생관 형성 요

소에 있어, 현대 여대생들은 87년의 여대생보다 '가정교육'이 더욱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현대 여대생들은 '삶의 보람'에 대해 '삶 자체가 삶의 보람(42.08%)', '가정이 화목할 때(25.96%)', '여가를 즐길 때'(19.27%)와 '성과를 거둘 때'(12.6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87년 여대생들은 '가정이 화목할 때(34.57%)', '성과를 거둘 때(29.25%)', '여가를 즐길 때(22.87%)', '삶 자체가 삶의 보람(13.29%)'이라는 순으로 응답하여, 이번 조사 결과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87년의 여대생들보다 오늘날 여대생들이 '삶 자체'에 더 많이 치중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인생의 추구 대상'에 있어서도 '건강(42.73%)'과 '자유(29.33%)' 두 문항에 대해 많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대 중국 여대생들은 이전의 이데올로기적 신앙에서 벗어나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강'과 '자유'를 추구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의 고민 내용'에 있어서 현대 여대생들은 주로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이 나쁘다(18.24%)', '세상살이가 힘들다(12.21%)' 두 문항에 대해 많이 응답한 편이다. 반면 95년의 연구 결과에서는 '생활 자체(24.5%)', '세상살이(18.4%)'에 대한 응답률이 많이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95년도 대학생들보다 요즘 여대생들은 '건강'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대 여대생들의 인생목표는 이전에 지녔던 단체로서의 의식보다 개인적인 '자아의식'이 많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대생의 인생관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가 사회교육에서 가정교육으로 변했다. '삶의 보람'에 있어서도 개인적 '삶 자체'를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현대 여대생들의 인생목표가 '현실적', '공리(功

利)직', '개인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대생들의 직업관에 있어, 우선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는 '연구소(35.52%)', '무역회사(24.05%)', '자영업(16.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4년의 연구에서는 '무역회사(36.3%)', '자영업(17.7%)', '국유기업(15.2%)', '연구소(5.4%)'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대조적인 결과를 이룬다. 따라서 직업 선택에 있어 1994년 여대생들보다 요즘 여대생들은 안정되고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여대생들의 '직업 선택 요소'에 있어서는 '월급(33.52%)' '전공지식(24.55%)', '생활보장(17.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4년 '월급(45.6%)', '전공지식(16.5%)', '직장환경(16.4%)'의 응답순서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94년도와 마찬가지로 현대 여대생들이 직업선택 시 '전공지식'이나 '생활보장'등의 기타 요인보다 '월급'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업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공지식(46.50%)'과 '사회활동능력(41.05%)'을 들었다. 이것은 1999년도의 통계조사에서는 '전공지식(46.5%)'과 '사회활동능력(23.6%)'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1999년과 같이 요즘 여대생들은 '전공지식'을 취업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회활동능력'도 조금의 차이는 드러나지만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대 여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연구소'이고, 직업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월급'이었다. 그리고 '전공지식'과 '사회활동능력'을 중요한 취업조건으로 꼽았다. 따라서 현대 여대생들은 '안정성'과 '보장성'이 있는 직업을 추구하고 동시에 직업 선택시 '경제적 수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전공지식’과 ‘사회활동능력’을 취업의 중요 조건으로 여겼다. 이는 현대 여대생들이 현실적이고도 독립적인 성향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대생들의 결혼관에 있어, 우선 여대생들은 ‘직업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직업과 가정에 다 충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나 되었다. 가계의 소득수준별, 학년별, 보호자의 직업별 응답자가 구별 없이 모두다 ‘직업과 가정에 다 충실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1990년도 조사에서 여대생들은 ‘가정(14.7%)’보다 ‘직업(85.2%)’을 더 중요시한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조사의 결과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90년대 여대생보다 현재 여대생들은 ‘가정’과 ‘직업’을 모두 중요시하는 경향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둘째, ‘취직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 있어서 ‘동의한다(40.26%)’, ‘그다지 동의하지 않다(36.08%)’, ‘동의하지 않다(18.01%)’와 ‘매우 동의한다(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관점에 대해 성장지역별 구분 없이 응답자 모두가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2000년의 조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관점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2000년의 여대생과 마찬가지로 현대 여대생들은 이러한 관념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결혼의 필요성’에 있어서 ‘결혼은 꼭 해야 한다(30.70%)’,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하면 한다(39.23%)’, ‘안 해도 괜찮다(13.05%)’와 ‘능력만 있으면 안 해도 된다(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 여대생들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3년도 금융과 무역에 종사하는 화이트 컬러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3%가 ‘독신을 원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신분에 따른 차이, 즉 '취업'과 '결혼'에 대한 직장 여성의 현실성과 여대생의 이상성 간의 인식 차이로 볼 수 있다.

넷째, '배우자의 교육수준'의 문항에 대해서 '나와 같은 사람(33.88%)', '나보다 높은 사람(49.31%)', '개의치 않는다(16.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지역별 지역 구분 없이 대부분 여대생은 자신보다 높은 학력을 지닌 사람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결혼상대의 조건'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71.58%)',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19.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응답자 대부분이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문항을 많이 선택하였다. 전체적으로 요즘 중국 여대생들은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데 상대방의 능력보다 자기를 사랑하는가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결혼 시기'에 있어서 여대생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출 때(51.79%)', '적령기에 해야 한다(19.07%)',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게 되면(13.73%)'과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14.1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출 때'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이것은 현대 여대생들이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적령기' 등과 같은 요소보다 경제적인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배우자의 결정'에 있어서 '본인 결정한 후 부모의 허락(54.87%)'과 '본인 결정(33.6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의 조사에서도, 여성의 연령이 어릴수록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적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드러내어, 본 조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대상자는 2000년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부모에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경향

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결혼 후 취업'에 있어서 90.0% 이상의 대상자는 '원한다'라는 문항에 응답하였고, 배경변인별 관계없이 거의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1990년과 2000년도의 조사에서도 여성의 연령이 어릴수록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후 취업에 대해 '원한다'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 후 취업'에 대한 인식은 시간의 추이와 관계없이 '원한다'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대 중국 여대생들은 직업과 가정을 모두 중시하며, 결혼 상대자 선택에서도 '능력'보다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의 시기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출 때'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배우자 결정에 있어서도 부모의 허락보다 자기의 선택을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결혼 후 취업'에 대해서 '원한다'는 성향을 드러내었다. 즉, 현대 중국 여대생은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결혼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 국내 문헌

#### <단행본>

- 강재태 외 저. 2000. 『진로지도 워크북』 교육과학사
- 권세혁 저. 2004. 『SAS SPSS 활용 설문조사분석』 자유아카데미
- 우수명 저. 2001. 『마우스로 잡는 SPSS 10.0』 인간과 복지
- 박정민 외 저. 2002. 『SPSS 11.0을 이용한 통계분석』 법문사
- 송재범 외. 2001. 『디지털시대의 직업윤리』 인간사랑
- 신수진 외 저. 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집문당
- 이정택 외. 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학지사
- 정영해 외 저. 2003. 『SPSS 10.0 통계자료분석』 광주사회조사연구소
- 최종후 저. 1998. 『설문조사 처음에서 끝까지』 서울: 자유아카데미
- P. B. 에브레이 저 배숙희 역. 1999.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삼지원
- 한국국민윤리학회. 1999.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서울: 형설출판사
- 홍성연 저. 2004. 『사회과학도를 위한 기초통계』 서울: 학지사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김낙중. 1995.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연구” 청  
주대학교 교육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순덕. 1996. “한·중 청년기 여성의 성의식 및 여성의식 비교연구” 경  
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중수. 1975. “중고등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인자. 1999. “청소년들의 직업관과 직업선호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욱. 2002. “사회체육 지도자의 체육철학적 가치관 분석 연구” 연세  
대학교 체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수환. 2003.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재. 1964. “가치관 검사의 재표준화 연구” 학생연구 제 3권 1호 서  
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 장지연 외. 2001.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  
향”, 한국사회학 제35집 4호
- 정현아. 1984.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 1994. “시대에 따른 여대생의 의식변화” 이화여자대학교 가정학  
과 석사학위논문

## ■ 외국 문헌

### <단행본>

- 戴煌. 2004. 『胡耀邦與平反冤假錯案』 中國工人出版社

- 王春光. 1995. 『社會的流動和社會的再構造』 浙江人民出版社
- 陸建華. 1996. 『婚姻家庭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陳方. 2003. 『世紀交替—中國女性價值觀的變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黃志堅. 1996. 『走向新世紀的中國青年』 「M」北京: 和平出版社
- 楊善華. 1999. 『世紀之交的城鄉家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明華. 1992. 『時代演進與價值選擇—中國人價值觀探討』
- 中國社會科學院 社會學研究所 ‘現代中國青年價值觀變化’ 課題組. 1993.  
『關與一代人價值觀的演變研究』 北京出版社
- Kluckhohn.F. R. and Strodtbeck. F. L. 1961.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 Evanston Ill. New York: Row Peterson Co.
- M. Rokeach.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Press
- R. H. Turner and P. E. Converse. 1965.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Osgood. C.E. 1957. Tannenham.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G. W. Allport & P. E. Vernon. 1960. *Study of Values, Manual* Boston:  
Houghton Mifflin
- Hochschild.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ew York: Viking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朱文彬. 1987. “女大學生人生觀的特徵和形成過程的影響要素”  
『高校研究』第2期

- 張敏. 2001. “中國大陸婚姻、家庭、性關係社會問題一瞥” 「新青年」第1期
- 朱健剛. 2001. “關與廣東外資企業中國白領女性的研究”  
「清華社會學評論」第1期
- 張宛麗. 1992. “中國社會現階段階級構造變化與中國婦女” 「婦女研究」  
第22期
- 孫云曉. 1994. “中國第一代獨生子的煩惱” 「家庭」第9期
- 劉德中. 2000. “中國的職業性別隔離和女性就業” 「女性研究論文集」第4期
- 李漢明. 2002. “雙軌制收入對勞動力需要的影響” 「複印報刊資料」第11期
- 莫榮. 2004. “通過數字看中國就業55年的變化” 「世界商業評論」第9期
- 郭正林. 1994. “廣東女大學生職業觀的調查研究” 「青年研究」第12期
- 蘇娜. 1999. “對女大學生職業觀的調查研究” 武漢大學 社會學科  
碩士學位論文
- 何清漣. 2001. “現代中國女性地位變化的環境分析” 「婦女研究」第6期
- 丁剛. 1994. “現代大學生人生觀的現狀和反思” 「社會科學戰線」第3期
- 劉汝權. 1993. “現代大學生人生觀分析” 「社會」第7期
- 邱新陸. 2003. “知識青年上山下鄉-研究綜述” 「當代中國研究」第4期
- 范海燕. 2001. “改革開放以來中國女性婚姻觀的變遷” 「婦女研究」第1期
- 呂靜. 2004. “中國青年職業觀20年回顧” 「青年研究」第3期
- J. K. Kinnane & M. W. Pable. 1962. *Family Background and Work Value Ori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Zytowski. D. G. 1970. *The Concept of work values*. Vocational Guidance  
Quarely
- T. W. Schultz. 1959. *Investment in Man: An Economist's Vies*, *The Social Service Review*, Vol. 33, No.2 and also hi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1961. American Economic Review



- 1) 노동자
- 2) 농민
- 3) 교사
- 4) 연구원
- 5) 고위 공무원
- 6) 사업가
- 7) 기타

6. 귀하의 가정 형편을 선택하세요.

-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 6) 기타

## 인생관

1. 아래의 조항에서 귀하의 인생목표를 선택하세요.

- 1) 국가의 번영을 위해 살겠다.
- 2)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
- 3) 개인의 명예를 위해 살겠다.

4) 운명에 따라 살겠다.

2. 아래에 귀하의 인생관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선택하세요.

- 1) 가정교육
- 2) 사회환경
- 3) 학교교육
- 4) 친구 및 서적
- 5) 기타

3. 당신은 어떤 때 가장 '삶의 보람'을 느끼니까?

- 1) 성과를 거둘 때
- 2) 가정이 화목할 때
- 3) 여가를 즐길 때
- 4) 삶 자체가 '삶의 보람'이다.

4. 다음 사항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 1) 재산
- 2) 애정
- 3) 자유
- 4) 건강
- 5) 학업
- 6) 신앙

5. 매일 생활 속에서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이 나쁘다.
- 2) 생활이 무미건조하다.
- 3) 자유시간이 적다.
- 4) 일·공부가 뜻대로 안 된다.
- 5) 경제적으로 곤란하다.
- 6) 세상살이가 힘들다.
- 7) 사회의 도덕이 아주 문란해졌다.
- 8) 장래의 취직문제에 대해서 불안하다.
- 9) 성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 10) 기타

## 직업관

1. 아래의 조항에서 귀하가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세요.

- 1) 무역회사
- 2) 자영업
- 3) 합작회사
- 4) 국유기업
- 5) 정부기관
- 6) 연구소

2. 아래의 조항에서 귀하가 선호하는 취업조건을 선택하세요.

- 1) 월급
- 2) 전공지식
- 3) 직장환경
- 4) 사회지위
- 5) 생활보장
- 6) 국외연수기회
- 7) 기타사항

3.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공지식
- 2) 사회활동능력
- 3) 외모
- 4) 가정 배경

## 결혼관

1. 귀하는 직업, 가정과 자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직업에만 충실하겠다.
- 2) 가정에만 충실하겠다.
- 3) 직업과 가정에 다 같이 충실하겠다.
- 4) 나 자신에만 충실하겠다.

2. '좋은 직업보다 시집 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동의한다.
- 2) 동의한다.
- 3)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 4) 동의하지 않는다.

3.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1) 꼭 해야 한다.
- 2)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야 한다.
- 3) 능력만 있으면 안 해도 괜찮다.
- 4) 안 해도 괜찮다.

4.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를 원하십니까?

- 1) 나보다 높은 사람.
- 2) 나와 같은 사람.
- 3) 개의하지 않는다.

5. 결혼상대를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 1) 나보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 2)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 3) 나를 사랑하면 된다.
- 4) 내가 사랑하면 된다.

6. 결혼의 시기는 어느 때가 좋다고 보십니까?

- 1) 결혼 적령기에
- 2) 경제적인 여유를 갖출 때
- 3) 이상적인 상대를 만날 때
- 4)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7. 귀하의 배우자를 누가 결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모가 결정
- 2) 부모가 결정하신 후 본인의 결정
- 3) 본인이 결정한 후 부모의 허락
- 4) 본인이 결정한다.

8. 결혼 후에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 1) 원한다.
- 2) 원하지 않는다.
- 3) 남편의 의견에 따른다.
- 4) 남편의 수입을 봐서 결정한다.